

美術史學研究

201



社團 韓 國 美 術 史 學 會
法 人

1994年 3月

14世紀後半 高麗象嵌靑磁의 新傾向

— 음식기명을 중심으로 —

李 鍾 玟*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造形의 新傾向 |
| II. 14世紀 後半의 磁器製作背景 | V. 맺음말 |
| III. 編年資料의 檢討 | |

I. 머리말

高麗時代의 象嵌靑磁은 12, 13세기에 전성기를 이루고 고려말기인 14세기가 되면 점차 질적으로 쇠퇴하면서 朝鮮時代의 粉靑沙器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감청자의 변천사에서 14세기는 질적인 쇠퇴로 인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단지 분청사기의 초보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4세기 중에서도 후반기는 고려, 조선이라는 두 왕조가 교차하는 과도기이며 新興士大夫라는 새로운 세력의 대두와 性理學이라는 지배이념의 성립, 강력한 集權官僚制의 추구, 地主·佃戶制의 발달과 身分制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 방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¹⁾ 또한 이 시기는 陶磁史에 있어서도 고려의 靑磁文化가 조선의 白磁文化로 교체되는 전환을 맞고 있었으며, 청자의 造形意匠이 변화하면서 15세기의 분청사기로 전환하는 첫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認知는 지난 1991년과 1992년 사이 海剛陶磁美術館에서 고려초기부터 말기까지의 대규모 靑磁窯場이 운집해 있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 일대를 지표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²⁾ 당시에 조사된 180여 개소의 청자요지 중에는 약 40여 개소가 14세기의 후반에 해당하는 象嵌靑磁窯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지에서는 14세기 중후반의 중요한 편년자료 중에

* 海剛陶磁美術館 학예연구원

1) 李泰鎮,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pp. 107~108.

2)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Ⅰ), 『康津靑磁窯址分布 地籍圖·地形圖』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査報告書(Ⅱ), 1992.

하나인 靑磁象嵌牡丹唐草文「正陵」銘대접³⁾과 유사한 磁片이 다량으로 수습되어 편년추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또한 함께 수집된 각종 靑磁片들은 고려말 상감청자의 제작경향을 새로운 방향에서 이해하게끔 해주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視覺은 고려말에 와서 상감청자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陶磁工藝의 쇠퇴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도 새로운 계통의 磁器가 출현하는 전단계로서 과도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쇠퇴, 소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요소들도 출현하고 있었다는 發展史的인 입장에서 이 시기의 도자상황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14세기의 자기제작에 있어서 쇠퇴의 원인이 대량생산에 따르는 필연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器形, 文樣, 製作技法의 고찰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쇠퇴하는 요소를 대신했던 고려말기 상감청자의 새로운 造形要素들이 분청사기의 초기 형식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고려말기 요지출토품을 자료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는 점에서 康津지역중심의 한정적인 고찰이라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으나 고려말의 상황이 康津을 중심으로 가마가 확대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선초 粉靑沙器研究와의 연계선상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II. 14世紀後半의 磁器製作背景

14세기는 국내의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격동기였다. 대외적으로는 고려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元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元·明 교체기(1367년, 元멸망)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국내상황은 정치력과 경제력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親元성향의 權門勢族이 私的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토지를 겸병하고 大農莊을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포탈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은 곤핍을 면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恭愍王 이후부터 性理學을 정신적 기반으로 한 지방의 鄕吏출신이자 中小地主계층이 점차 중앙관리로 진출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新興士大夫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각종 개혁정치를 주장하였지만 이미 혼미해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⁴⁾

이러한 사회질서체제의 문란은 산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農業, 手工業 등의 생산형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표적 수공업인 도자기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도자산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觀賞用 器皿의 제작이 줄어들고 실용성 있는 음식기명이 대량제작

3) 靑磁象嵌牡丹唐草文「正陵」銘대접에서의 正陵은 恭愍王의 妃 魯國大將公主(?~1365)의 陵號이다.

4) 朴龍雲, 『高麗時代史』下, 一志社, 1989, pp. 527~593.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質이 하락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제작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은 수요계층이 확대되고, 도자기를 통하여 이윤추구가 가능해졌으며, 實用性を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14세기 후반의 磁器製作背景을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14세기 후반에는 도자기의 需要階層이 量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고려시대는 貴族, 中間階層, 良人, 賤人의 구별이 뚜렷한 身分制社會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분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고려말기로 갈수록 동요의 폭이 넓어지는데 특히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의 신분상향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종 戰亂으로 인한 戶籍의 소실과 행정의 공백, 신분 상승의 욕구 등에 의하여 이른바 鄉·所·部曲에 소속된 集團賤民이나 상업, 공업에 종사하는 천민까지도 良人이 되거나 入仕하는 예가 많아졌다. 그리고 鄉吏가 주축을 이루는 中間階層은 新進士類의 원류로서 점차 세력을 증대시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신분을 상승시켜 간예의 하나로서 恭愍王 3년 軍功을 세운자에게 상으로 벼슬을 주는 添設職제도는 士人이나 鄉吏層이 入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심지어 商工之賤들도 지방의 수령에 오르게 되는 등 고려말의 양반층은 대폭적인 팽창을 하게 되었다.⁵⁾

이와 더불어 고려말에는 지방행정조직이었던 郡縣制가 개편되면서 屬縣이 主縣으로 승격하는 예가 급격히 증가하고 地方官衙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顯宗 9(1018)년만 하더라도 모두 93개였던 主縣은 恭讓王 3년(1391)에 이르게 되면 무원칙한 濫設로 인하여 273개의 屬縣이 독립하면서 모두 360개에 이르게 된다.⁶⁾

따라서 개인이든 官이든 磁器의 사용을 원하는 계층은 고려초에 비하여 엄청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용기의 생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계층인 陶工에게는 빠르고 손쉬우며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14세기의 窯址에서 수습되는 磁片의 대부분이 대접, 접시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14세기 후반에는 收聚體系가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개인자본에 의한 磁器生産으로 이윤추구가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14세기에는 집권층에서 私膳, 또는 別膳의 형태를 통하여 무리하게 貢物을 징수하는 예가 빈번하였고 지방관리들까지 국가의 收聚體制를 잠식함으로써 그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각종 所에서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세징수가 생산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⁷⁾ 이와 관련하여

5) 朴龍雲, 앞의 책, pp. 581~593.

6) 李義權, 「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統治政策 - 主·屬縣考察을 中心으로 -」, 邊太燮編,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p. 257.

7) 13세기말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私膳, 別膳에 대한 폐단을 사정하려는 上疏나 下敎의 기사는 史書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생산과 관리, 그리고 收聚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층 역시 무거운 부담을 회피하고자 권력자에게 기탁하는 예도 적지 않았으며⁸⁾ 그 결과 貢役의 의무가 있었던 所에 대한 收聚權 역시 미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⁹⁾

이러한 현상은 도자기제작을 담당하고 있었던 磁器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官窯의인 형태¹⁰⁾로 운영되었던 磁器所의 경우에도 가마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사실상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재력있는 유산계급이나 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司甕의 관리들에 의한 私的 침탈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1389년 新進士大夫였던 趙浚에 의한 上疏는 고려말의 문란했던 收聚體制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司甕에서는 매년 사람을 각도에 보내어 궁중에서 사용하는 瓷器(內用瓷器)의 제조, 감독을 1년에 한차례씩 하게 하였으나 공을 빙자하고 私를 영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침탈하니 한 道에서 실어가는 것이 소 8, 90수레에 이르므로(사용의 관리들이)지나는 곳마다 떠들썩하고 京都에 이르러 바치는 것은 겨우 백분의 일이요 나머지는 모두 이를 사취하니 폐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¹¹⁾

이 기사는 司甕¹²⁾ 산하의 磁器所가 각 道에 있었고 관리를 파견하여 內用磁器를 감독제작하게 하였으나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조선초인 太宗 17년 경(1417년)에는 도자기를 세금의 형태로 戶曹에서 수납,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¹³⁾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 역시 가마의 운영이 국가기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14세기 전반의 일이기는 하지만 忠惠王代(1339~1344년)에 沙器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① 『高麗史節要』, 卷 19, 忠烈王 1年(1279), 11月條

② 『高麗史』, 志 卷第 38, 刑法 1, 職制, 忠烈王 24年(1298), 正月條

③ 『高麗史』, 志 卷第 38, 刑法 1, 職制, 忠肅王 5年(1318), 5月條

④ 『高麗史』, 志 卷第 38, 刑法 1, 職制, 恭愍王 11年(1362), 6月條

8) 『高麗史』, 志 卷第38, 刑法 1, 職制, 忠烈王 22年(1296)條, ‘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 無一戶者多矣, 外吏, 依勢避役者, 悉令歸鄉, 丁吏, 亦令減數歸鄉’.

9)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第50輯, 1975, pp. 53~60.

10) 고려의 도자기 제작체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밝혀줄만한 史料는 없다. 다만 여기서의 官窯의 체제란 국가나 기관에서 필요한 도자기의 需給을 위하여 磁器所에서 일정량을 貢物의 형태로 상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가마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엄격한 의미의 官窯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11) 『高麗史』, 列傳 卷第31, 趙浚(1346~1405)條, ‘…司甕, 每歲遣人於諸道, 監造 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僥漁萬端, 而一遺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進獻者, 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12) 司甕이 司甕院 또는 司甕房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려말 宮中の 음식관리는 司膳署에서 담당하였고 朝鮮 太祖 1년에 司甕房으로 개칭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司甕은 司膳의 誤記일 가능성이 있다.

13)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1417) 4月 丙子條, ‘戶曹上器皿除幣事宜, 啓曰, 據長興庫呈外貢砂木器, 以司甕房納施行…’. 戶曹는 貢賦, 戶口, 錢糧, 食貨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도자기를 토산공물의 형태로서 수납받았다. 만약에 陶磁所가 관영이었다면 工曹에서 운영관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商人이 있었고 그의 딸이 왕의 後妃까지 되었다는 記事¹⁴⁾는 청자가 이미 민간에 상당부분 유통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자본을 이용하여 이윤추구가 가능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말에 수요계층의 저변확대로 인하여 민간인까지 도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작 성향은 실생활용기 위주와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14세기 후반에는 도자기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의 器皿은 金銀器를 포함해서 陶器, 磁器, 木器, 銅器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12~13세기경에 民家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일상생활용 그릇은 銅器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먼저 顯宗 6년(1025) 고려의 문인 郭元이 宋에 입조하여 고려의 풍물을 밝히기를 ‘민가의 그릇은 모두 銅을 사용한다.’¹⁵⁾라고 언급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1123년 고려에 宋나라 사신의 수행원으로 왔던 徐兢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물이나 쌀이나 밥이나 마시는 것을 모두 銅항아리에 담았으며 어깨에 매지 않고 모두 머리에인다.’¹⁶⁾, ‘지금 고려에서는 평상 위에 작은 소반을 놓고 그릇으로는 銅器를 쓰며...’¹⁷⁾, ‘기명은 대부분 금칠한 것을 썼고 흑,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푸른색 도기를 값진 것으로 친다.’¹⁸⁾라고 記述하고 있어 銅器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사신을 대접하거나 국가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金銀器나 鍍金器를 사용하였고 청자는 귀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3세기 후반에 들어와 변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여섯 차례에 걸친 蒙古의 침입과 對蒙抗爭, 그리고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의 일본정벌 등은 금속이 그릇보다는 군수물자의 재료로써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13세기 후반부터는 원나라에 공물로 바치던 銅의 양도 상당량에 이르고 지속적인 헌납을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에²⁰⁾ 당시에 고려에서의 銅사용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銅의 수요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예로는 14세기 忠惠王 때 新宮을 축조하면서 부족했던 금속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가에서

14) 『高麗史』, 列傳 卷第2, 后妃2, 銀川翁主 林氏條,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費沙器爲業, (下略)’

15) 『宋史』, 卷487, 列傳 제246, 外國3, 高麗 大中祥符 8年(高麗 顯宗 6年, 1015年)條, ‘民家器皿悉銅爲之’(秦弘燮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87, p. 602에서 재인용)

1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0, 夫人, 載條, ‘水光飲獸, 并貯銅壺, 不以肩昇, 加於頂上,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고려도경』, 경인문화사, 1978, p. 128 참고)

17) 徐兢, 위의 책, 卷22, 雜俗1, 鄉飲條, ‘今麗人, 於榻上, 復加小姐, 器皿用銅’(『국역고려도경』, p. 135 참고)

18) 徐兢, 위의 책, 卷26, 燕禮, 燕儀條, ‘燕飲之禮, ...器皿多以塗金或以銀, 而青陶爲貴...’(『국역고려도경』, p. 158 참고)

19) 崔健, 『粉靑沙器의 成立與件에 關한 考察』, 『文化財』第21號, 1988, pp. 77~79.

20) 『高麗史』, 世家 卷第25, 元宗 壬戌 3年(1262)條, ‘九月庚午, 蒙古, 遣按脫魯 徹兒, ..., 索鷄子, 及好銅, 我國, 以好銅, 疑赤銅, 問於憲, 答曰, 好銅者, 鑰鑰子也, 於是, 令幸樞至六品, 收鑰鑰有差, ...’

『高麗史』, 世家 卷第30, 忠烈王 乙酉 11年(1285)條, ‘元, 遣李熙載來, 昭曰, 除 法物, 鍾磬·銅鏡·古銅瓶鼎·熟銅器物外, 其餘應有銅蓋·生銅器物, 以聖旨到, 限百日, 悉納所在官, 尋命停罷.’

銅을 거두어 들였던 사실을 들 수 있다.²¹⁾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금속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려말에는 금속그릇보다는 도자기의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4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사치풍조가 극심해서 新進士大夫들에 의해 근검절약을 주장하는 여러가지 상소가 잇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李齊賢은 사치풍조에 대한 헌탄과 더불어 예전에는 銅器와 磁器, 陶器만을 사용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²²⁾ 恭愍王代에는 司天少監 于必興이 ‘무릇 그릇은 鑪銅瓦器로 하여 풍토에 순응케 하소서’라고 상소하여 이를 따랐다는 記事²³⁾가 있을 뿐 아니라 恭讓王代의 中郎將 房士良은 ‘鑪銅은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니 이제부터 銅鐵의 사용을 급하고 오로지 磁器와 木器를 써서 습속을 고치도록 하소서’²⁴⁾라고 상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결국 고려말의 열악했던 재정상황과 일부 집권층의 사치가 상소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新進士大夫들에 의해 磁器, 陶器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정책적인 배려속에서 磁器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

실제로 고려말에 와서 도자기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가마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즉, 14세기 전반까지의 자기제작지는 전북 부안과 전남 강진의 두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4세기말에서 15세기초가 되면 전국 각지에 20여 개 지방으로 열배이상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15세기 전반의 도자기 제작지를 수록한 『世宗實錄地理志(1424~1432년)』에서는 139개소의 磁器所를 밝히고 있어서 고려말에서 조선초까지 불과 1세기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자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속에서도 수요계층이 확대되고 新興士大夫들의 정책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실생활용기가 대량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觀賞用器皿이나 고급자기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이며 결국 상감청자는 質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21)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復)4年(1343)條, ‘新宮殿宇門戶, 皆飾鑪銅, 乃命百官下至胥吏, 每二人, 給五緞布一匹, 徵鑪銅二斤, 人皆苦之, 又欲諸道銅鐵, 鑄鼎鑊鑄釜, 納之新宮, 於是, 民間農器, 盡括無餘.’

22)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復)5年(1344)條, ‘金海君李齊賢, 上書都堂曰…前輩公卿, 被服只用素假, 若袖布器皿, 只用鑪銅瓷瓦, … 近來風俗, 窮極奢侈, 民生困而 國用匱, 職此而已, 請宰相, 今後不以錦繡爲服, 金玉爲器, …’

23) 『高麗史』, 世家 卷第39, 恭愍王 6年(1357)條, ‘閏月, 戊甲, 司天少監于必興上書言, 凡器用鑪銅瓦器, 以順土風, 從之’

24) 『高麗史』, 志 卷第39, 刑法2, 禁令條, ‘中郎將房士良, 上疏, …鑪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 禁銅鐵器, 專用委木, 以革習俗’

III. 編年資料의 檢討

그러면 이 章에서는 蠶産과 衰退라는 相反關係를 갖고 있는 14세기 후반의 尙監淸자를 고찰하기에 앞서서 이 시기의 제작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몇개의 編年資料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靑磁象嵌柳文「乙酉司醞署」銘梅瓶(圖版 1)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매병은 목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나 어깨에서 몸 아래를 향해 세로로 黑象嵌된 「乙酉司醞署」라는 명문이 남아있어 편년의 설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주고 있다. 司醞署란 고려시대에 酒醴供奉을 관장하던 국가의 기관으로 乙酉年 어느 때인가에 사은서에 상납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文宗 때 良醞署가 설치된 이후 관청명과 주관하는 관리의 품직이 몇번씩 바뀌어 왔으나 사은서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관장하던 기간은 忠烈王 34년(1308)에서 恭愍王 4년(1355) 사이와 恭愍王 11년(1362)에서 同王 17년(1368) 사이, 그리고 역시 恭愍王 21년(1372) 이후²⁵⁾부터 朝鮮 太祖 중기까지였다. 이 중에서 乙酉年이 들어간 시기는 忠穆王 1년인 1345년에 해당되며 이 매병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乙酉司醞署」銘매병에서 볼 수 있는 造形上의 특징은 우선 형태면에서 어깨가 처지고 하단부가 짧은 모습을 하고 있어 전성시기의 매병에서 상당부분 이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문양의 경우 어깨 부분의 蓮瓣文帶, 몸체 양면의 버드나무와 갈대 등의 표현에서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략화시키거나 대충 施文하고 있어²⁶⁾ 1345년경 청자매병의 제작상태가 이미 쇠퇴의 과정에 상당히 들어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靑磁象嵌如意頭文「至正」銘접시편(圖版 2, 圖面 1)

이 磁片은 현재 하단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器形을 알기는 어렵지만 원래는 측면선이 직선에 가깝고 내면 바닥이 편평한 소형접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품인 이 접시편은 강원군 사당리 일대에서 지표수집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磁片이 1963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沙堂里 堂前부락의 靑磁瓦窯址를 발굴 조사했을 때에 발견된 바 있다고 한다.²⁷⁾

至正은 1341년부터 1367년 사이에 사용된 元 順帝의 年號이다.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에는 恭愍王 5년(1356)부터 원의 연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기록이 있어²⁸⁾ 만약에 이 명이 시행되었다면

25) 『高麗史』, 志 卷第31, 百官2, 司醞署條.

26) 姜順天, 「高麗時代 靑磁梅瓶의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5, pp. 81~83.

27) 鄭良謙,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世界陶磁全集』18 高麗, 東京, 小學館, 1979, p. 226.

28) 『高麗史』, 世家 卷第39, 恭愍王2, 「…乙亥, 停至正年號…」

「至正」銘청자는 1341년에서 1356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磁片은 표면에 담갈색의 釉色이 씌워져 있으며 가는 균열이 전체를 덮고 있다. 접시의 내부 바닥에는 백상감의 如意頭文을 돌렸고 二重의 圓 안에 흑상감으로 「至正」을 새겨 넣었다. 이와 같이 내면 바닥에 如意頭文이 상감되고 굽의 바닥면을 대충 긁어 번조하는 모습은 14세기 중후반의 소형접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3. 「丁亥」銘靑磁類(圖版 3)

앞에서 언급한 靑磁象嵌 「至正」銘접시편과 더불어 14세기 중후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丁亥」銘청자류가 있다. 干支가 상감된 청자²⁹⁾의 경우 그 제작시기에 있어서 학자들간에 異見이 있어 왔으나³⁰⁾ 「丁亥」銘청자편의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沙堂里 瓦窯址를 발굴 조사했을 때 파편의 일부가 「至正」銘편과 같은 층위에서 출토됨에 따라 丁亥를 1347년으로 보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丁亥」銘청자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우선 이 명문이 시문된 器形이 주로 소형접시류에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釉色에 있어서 대체로 암갈, 암록, 담록 등 어두운 황갈색계통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 가는 균열이 덮고 있다. 또한 굽의 접지면과 안바닥은 유약을 시유한 후 대충 긁어낸 흔적이 역력하며 굽받침법에 있어서 모래를 받쳐굽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4. 靑磁象嵌牡丹唐草文 「正陵」銘대접(圖版 4, 圖面 2)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내면바닥에 「正陵」銘이 백상감된 대접이 있다. 正陵이란 1365년 세상을 떠난 恭愍王의 妃 魯國大將公主의 陵號로써 이 글씨가 새겨진 그릇들은 正陵에서 제사 때에 사용했던 享祭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대접의 제작시기는 公主沒年인 1365년의 하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글씨가 새겨진 그릇의 일부가 1928년 日人에 의하여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서 수습됨에 따라³¹⁾ 고려말까지 왕실용 그릇이 강진 일대에서 계속 제작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9) 간지명청자에서 간지가 상감된 것으로 밝혀진 예로는 현재 8가지(己巳, 庚午, 壬申, 癸酉, 甲戌, 壬午, 乙未, 丁亥)가 있다.

30) 干支銘상감청자는 수량이 많이 현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편년문제가 제기 되어 왔다. 그 내용으로는 대체로 「己巳」銘을 시작으로 「壬午」銘에 이르기까지를 13세기 후반으로, 그리고 「丁亥」銘을 14세기 중반으로 상정하는 견해(崔淳雨, 鄭良諤, 崔健)와 여덟 간지를 모두 다 14세기 전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동안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高裕燮, 尹龍二)가 있다.

31)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爾舍, 1944, pp. 96~97.

이 「正陵」銘대접은 器形과 文樣에서 14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던 대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형의 경우 대접의 내면 바닥에는 넓은 圓刻이 형성되어 있고³²⁾ 구연에 가까운 외부의 측면선이 수직을 이루며 대마디처럼 단이 형성된 竹節形 굽을 가지고 있다. 문양의 경우는 내측면에 4단 구성을 이루는 문양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심문양인 牡丹唐草文³³⁾은 器面 네 곳에 흑백상감된 모란꽃을 상감한 후 그 사이에 넝쿨형태의 唐草와 작은 잎새를 채워 넣었다. 각각의 문양대에 시문된 당초문과 蓮瓣文帶는 반복적이며 간략화되었고 施文具를 이용하여 인화기법으로 상감하였다.

또한 이 대접은 담갈색의 釉色을 띠고 있으며 전체를 시유한 후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그릇 표면에는 구울 때 갑발을 사용하지 않은 듯 접타가 남아 있어서 이 그릇이 고려말 최상의 질에 속했던 御用祭器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는 지금도 형식이 유사한 牡丹唐草文象嵌靑磁가 대량으로 수습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초기 분청사기요지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는 磁片이 발견되고 있어서 14세기 중후반을 이후로 조선초까지의 대접 형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제작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令傳寺址출토 靑磁象嵌線文대접(圖版 5, 圖面 3)

이 대접은 강원도 원성군 본부면 令傳寺址에 위치해 있던 普濟尊者浮屠塔인 三層石塔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형태는 내면 바닥이 둥근 평범한 대접의 하나이며 문양은 內側面에 세 줄의 백상감선을 시문한 것이 전부이다. 釉色은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대접 외면에는 유약이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다. 안쪽으로 경사진 굽의 접지면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으며 대접 내면의 바닥에는 네 개의 점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器面이 깨끗하지 못하다거나 문양 소재가 손쉽게 시문할 수 있는 線文인 점은 이 대접이 上品과는 거리가 있는 제작품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 대접은 함께 발견된 집관암질의 誌石에 '洪武 21年(明太祖의 年號, 1388) 戊辰 4月'이라 기록되어 있어 고려 최말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³⁴⁾

32) 圓刻의 폭이 넓다는 의미는 기형의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접의 내면바닥에 원각이 형성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것이 대접의 바닥을 장식하는 한 형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는 干支銘靑磁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正陵」銘대접에 와서는 內底圓刻의 지름이 더욱 커져 굽지름보다도 넓게 제작되기 시작한다. 「正陵」銘대접에서의 원각의 크기는 7.2cm로 굽지름보다 월등히 크다.

33) 이 문양에 대하여 蓮唐草文으로 보는 견해(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90, pp. 208~209)와 牡丹唐草文으로 보는 견해(①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p. 109, ② 尹龍二, 「干支銘象嵌靑磁의 製作時期에 관하여」, 위의 책, p. 118)가 있다.

34) 野守健, 앞의 책, p. 34 참고.

IV. 造形의 新傾向

앞에서 14세기 중후반의 도자기제작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몇가지 편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章에서는 이러한 편년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남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고려말기 상감청자요지 수습품과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상감청자를 중심으로 造形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향들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4세기 후반이 되면 도자기의 器形이나 文樣, 製作技法 등의 조형적 요소에서 몇가지의 조류가 형성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폭을 별로 갖지 않으면서 고려의 상감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기로 이어지는 계통, 14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쇠퇴·소멸해 간 계통, 그리고 14세기 후반에 와서 새롭게 출현하면서 조선초 분청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쇠퇴·소멸해 간 계통과 새롭게 발생한 계통에 주목하여 이들을 상호 대비시킴으로써 14세기 상감청자의 제작경향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1. 器 形

상감청자의 전성시기에는 대접, 접시류 이외에도 생활용품의 대다수가 도자공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4세기에 오면 전성기의 상감청자에서 볼 수 있었던 甌, 梅瓶, 注子, 盞托, 壺, 油瓶, 花盆, 陶板 등의 제작이 줄거나 중단되고 대접, 접시류를 중심으로 한 飲食器皿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대접, 접시류를 중심으로 기형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쇠퇴·소멸하는 기형

고려시대 말기까지 제작되었던 상감청자계통의 飲食器皿에는 甌, 鉢, 대접, 접시, 주전자, 잔, 향아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 중에서도 14세기 후반에 와서 쇠퇴·소멸하는 종류로는 주로 접시류에서 나타나는데 그 예로는 口緣이 斜線式으로 벌어진 접시(口緣斜線式접시), 八角접시, 口緣이 안으로 內彎한 花形접시(口緣內彎形花形접시) 등이 있다. 이들은 고려청자에서 가장 유행했던 기형이었으나 고려말이 되면 자취를 감추고 초기 분청사기의 조형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자 고유의 특색을 내포하고 있는 종류에 해당한다.

① 口緣斜線式접시

먼저 口緣斜線式접시는 구연에서 하단부 사이의 측사면이 직선에 가깝고 하단부에서 계단처럼 꺾여 굽에 이르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 기형의 祖型으로 제작시기가 분명한 것은 1202년에 沒한 明宗의 智陵 출토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靑磁陽刻菊花文접시와 靑磁象嵌菊花文접시(圖版 6의 ①, ③, 圖面 4)는 구연이 밖으로 약간 벌어지고 하단부가 꺾인 부분

없이 바로 接地面으로 연결되며 굽바닥을 편평한 속굽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13세기 후반에도 계속 이어져 1269년에 제작된³⁵⁾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접시(圖版 7, 圖面 5)를 비롯한 같은 시기의 다른 干支銘접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88년에 제작된³⁶⁾ 青磁象嵌菊花文「壬午」銘접시(圖版 8, 圖面 6)의 경우는 하단부를 깎아냄으로 해서 굽이 드러나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는 口緣斜線式접시는 사당리 10호요지를 위시한 대구면 소재의 14세기 후반 요지에서 多數가 발견되고 있어서 고려말까지 제작되었던 器種임을 알 수 있다(圖版 9, 圖面 7). 그러나 이 접시가 분청사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게해주는 자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측사면이 직사선에 가까운 형식의 접시는 분청사기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접시는 고려말에 소멸한 기형으로 볼 수 있다.

② 八角접시

고려말에 소멸된 상감청자의 또 다른 기형으로는 八角접시가 있다. 측면이 角으로 이루어진 접시는 器壁의 面數에 따라 팔각, 또는 육각의 접시로 구분되나 그중에서도 팔각접시의 제작비중이 더 높았다. 이 접시의 제작은 成形된 器面의 내부에 陶范(틀)을 대고 외면을 손으로 눌러서 다듬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문양은 陶范에 의한 陽刻무늬가 내면에 새겨지고 외면에는 거의 대부분 상감을 하고 있다.

제작 시기가 알려진 팔각접시 중에 가장 이른 예로는 1202년에 돌아간 明宗의 智陵에서 출토된 青磁陽刻·象嵌牡丹文八角접시(圖版 6의 ②, 圖面 8)가 있다. 이 접시의 특징은 各面의 분할이 정확하고 높이가 낮으며 器壁이 얇고 斷面이 V字形인 굽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의 干支銘象嵌青磁가 제작되던 시점에 오면 팔각접시는 높이가 높아지면서 구연이 안으로 약간 오므라들고 기벽이 두꺼워지며 굽이 뚜렷해지는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干支銘청자의 뒷시기에 해당하는 1347년 추정 「丁亥」銘八角접시(圖版 10, 圖面 9)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4세기 후반에 들어와 청자의 제작 양상에서 느껴지는 簡化현상은 팔각접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진 대구면 사당리 10호요지에서는 외부의 角線이 밋밋해지고 象嵌線만으로 면분할을 시도한 팔각접시편(圖版 11, 圖面 10)이 수습되고 있다. 거의 퇴화되어 팔각접시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 이 접시는 면을 구획한 상감선을 제외한다면 물레로 成形한 일반 접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팔각접시는 고려말을 기점으로 조선조 분청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쇠퇴하여 소멸해간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말에 와서 그릇의 제작이 손쉽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공이 많이 가는 그릇은 점차 퇴조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③ 口緣內瓣形花形접시

陶范으로 제작되었으며 고려말에 소멸한 또하나의 기형으로는 구연이 약간 오므라들고 器壁이

35) 1329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36) 1348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수많은 면으로 이루어진 口緣內瓣形花形접시가 있다. 마치 국화를 형상화한듯 한 이 접시는 성형한 접시의 내면에 도법을 넣고 외면을 손으로 눌러서 완성하였으며 부분적인 손질을 하여 다듬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磁象嵌菊花文花形접시(圖版 12, 圖面 11)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13세기 제작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접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13세기경의 口緣斜線式접시나 八角접시에서처럼 器壁이 얇고 속굽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정교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14세기가 되면 이 접시에서도 퇴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우선 1989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전남 화순군의 雲住寺址를 발굴했을 때 건물지에서 발견한 靑磁象嵌「丁亥」銘花形접시편(圖版 13, 圖面 12)³⁷⁾에서는 상감시문 면적이 줄어들고 기벽이 두터워졌으며 굽이 들출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접시류는 14세기 후반이 되면 퇴화의 진행이 더욱 심화되는데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호요지 수습품의 경우에는 상감문양이 완전히 탈락하고 간단한 陶范을 이용하여 그릇을 제작하고 있으며 器壁의 면분할을 조각도의 선으로 대충 마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 접시 역시 분청사기의 조형과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고려말에 소멸했던 기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 새로운 기형

앞에서 고려말에 소멸해 간 기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음식용 그릇들이 출현한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들은 아주 새롭게 출현하거나 또는 종래의 전통적인 기형에서 상당부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형들에 해당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口緣이 외반한 대접(口緣외반식대접), 外面에 돌기문이 있는 접시(突起文접시), 납작한 전접시, 종자형 잔 등이 있다.

① 口緣외반식대접

이 대접은 밖으로 벌어진 口緣을 갖고 있으며 일반 대접보다 속이 깊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접은 12, 13세기에는 제작된 예가 거의 없는 새로운 器形에 속하며 14세기가 되어서야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³⁸⁾ 釉胎의 질이나 시문기법상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靑磁象嵌雲鶴文「哀禮色」銘대접(圖版 14, 圖面 13)은 전통적인 상감정자의 기형보다는 중국 元代 景德窯의 樞府白磁계열인 白磁印花唐草文대접(圖版 15, 圖面 14)에서 보다 많은 親緣性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접의 형태는 15세기의 印花文系 粉靑沙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박

37) 全南大學校博物館, 『雲住寺 III 發掘調査報告書』, 1990, pp. 18~22, 47~49 참고.

38) 鄭良諤, 「新安 海底文物을 통해 본 14世紀 東아시아의 陶磁文化」, 『叢檀學報』 71·72輯, 1991, pp. 382~394.

물관 소장품인 粉靑沙器印花文「長興庫」銘대접(圖版 16, 圖面 15)은 내면 바닥이 둥글고 구연이 밖으로 벌어졌으며 器面의 하단부가 넓어져 있어 시문된 문양만 제외한다면 靑磁象嵌雲鶴文「宴禮色」銘대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계통의 대접은 분청사기에서 다량으로 제작되고 있어 元陶磁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器形이 고려말 조선초의 도자기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突起文접시

14세기 후반에 와서 구연이 약간 내만한 접시에 굵은 線帶를 돌출시킨 突起文접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종류의 접시는 14세기 전반까지의 상감청자에서 제작된 예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가마인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호요지에서 突起가 형성된 접시가 발견됨으로 해서³⁹⁾ 지금까지 알려진 상감청자의 조형과는 다른 종류임을 알게 되었다(圖版 17, 圖面 16). 이 접시는 제작불량으로 기형이 뒤틀려 있지만 외면에 突起帶를 강조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하며 同種의 접시류에서 가장 이른 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접시의 器壁 외면에서 볼 수 있는 굵은 線帶는 자생적이라기 보다는 외래적인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⁴⁰⁾ 그러한 가능성은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元代 龍泉窯계통의 靑磁접시(圖版 18)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이 용천요산 접시는 측사면이 斜線을 이루고 내면에는 花葉을 모방한 구획선을 주었으며 외측면 중앙에는 가는 突起가 형성되어 있다. 고려의 강진 사당리 수습품 돌기문 접시와 元代 용천요산 접시의 형태는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器面에 突起帶를 강조한 모티브는 양자간에 상호 영향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접시는 고려 최말기의 청자가마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선초의 분청사기요지에서 突起帶가 두줄의 음각선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圖版 19, 圖面 17).

③ 전접시

발생기형의 또 다른 예로는 새로운 형태의 전접시를 들 수 있겠다. 전접시란 구연이 수평으로 벌어지고 내면의 바닥이 편평한 접시를 말하지만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전접시는 외반된 구연의 끝이 안으로 약간 말려있고 바닥면이 편평하며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를 갖고 있는 접시를 말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花形전접시와 유사하지만 제작방법은 花形전접시가 陶范을 이용하여 押出陽刻技法으로 제작된 것에 반하여 전접시는 물레로 成形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접시는 강진 대구면 사당리 10호요지 수습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圖版 20, 圖面 18). 이 접시가 전성시기의 상감청자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계통이 다른 제작품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앞바다에서 출토된 중국 元代 龍泉窯産의 靑磁전접시(圖版 21)는 형태가 사

39) 註 2)의 책(Ⅰ), p. 289.

40) 鄭良謨, 「新安海底 陶磁器의 編年的 考察」, 『신안해저문화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國立中央博物館, 1977, p.

61 참고.

당리 10호요지 수습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하다. 전의 끝이 약간 말리고 전체적으로 납작하며 내면 바닥이 편평한 모습은 사당리 10호요지 수습의 전접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두접시 사이에는 상호연관성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말에 처음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새로운 전접시의 형태는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분청사기 중에는 같은 형식을 동반하는 기형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 전접시는 고려말에 일시적인 유행을 했다가 사라진 기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④ 鍾子形 盞

대접이나 접시류 이외에 14세기 후반에 와서 새롭게 출현하는 기형으로서 소형접시와 盞의 중간 형태를 갖는 鍾子形 盞(이하 盞으로 통일)⁴¹⁾이 있다. 이 잔의 특징으로는 둥근 器壁과 밖으로 약간 벌어진 구연, 그리고 내면 바닥이 곡면을 이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새로 출현한 잔의 선구적인 모습은 사당리 10호요지 수습품인 靑磁象嵌盞片(圖版 22, 圖面 19)에서 느낄 수 있다. 이 잔은 구연 부위가 파손되어 비록 정확한 형태를 알기는 어렵지만 내면 바닥 중앙에 菊花文이 印花施文되어 있고 그 주변을 魚子文으로 둘러 말기청자의 문양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굽의 접지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命傳寺址 출토 靑磁象嵌線文대접’에서와 같은 세 개의 굽은 점토받침 흔적이 있어 이 잔이 고려 최말기에 제작된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磁象嵌菊花文盞(圖版 23, 圖面 20)은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의 소재, 배치 등에서 사당리 수습품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계통의 잔은 적어도 15세기 초반까지는 그 전통이 확실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소재의 虎鳴山 崔雲海墓에서 출토된 粉靑沙器象嵌波濤文盞(圖版 24)은 1404년의 下限을 갖고 있는 編年資料로서 형태는 앞의 두 잔보다 옆으로 약간 더 벌어졌고 문양은 내면에 魚子文과 波魚文이, 외면에는 卍字文과 雨点文이 시문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형이나 문양의 소재, 배치 등은 末期象嵌靑磁의 요소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앞의 두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잔의 형식이 15세기 초반이후 얼마나 더 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鍾子形 盞은 14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15세기초까지 일시적인 유행을 했던 기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대접, 접시, 잔 등의 飲食器皿을 중심으로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41) ‘종자’라고도 함.

변화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器形에서 볼 수 있는 성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4세기 후반에 쇠퇴·소멸하고 있는 기형으로는 소형접시류이면서 陶范(틀)을 이용하여 제작하던 종류가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器種은 당시에 비교적 고급 그릇에 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는 제작측면에서 볼 때 手工이 많이 가는 관계로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용성면에서도 다른 그릇에 뒤떨어져 결국 도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4세기 후반에 와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기형들은 대체로 造形의 근원을 그 이전의 상감청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中國 元代의 龍泉窯靑磁나 景德鎮白磁의 제품들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元代의 도자기 무역은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주변의 여러 나라에 상당한 물량을 수출하고 있었고 고려에도 元의 磁器가 상당량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器形들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元代 도자기와의 관련하여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형들과 함께 쇠퇴·소멸해간 기형들을 대체해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文 樣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문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본래의 문양이 갖고 있었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을 거의 상실하고 있으며 간략화되거나 印花文계통의 象嵌이 많아진다는 점일 것이다. 문양의 배치에 있어서도 대형 그릇의 경우에는 器面에 중심을 이루는 문양의 비중이 줄어들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문양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접, 접시 같은 소형 그릇의 경우에는 중심문양과 보조문양의 구분이 차차 없어지면서 印花文만 시문되는 경향을 보이며 나중에는 몇 줄의 線만 남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⁴²⁾ 이 시기에 施文되었던 문양의 素材는 종류에 있어서도 13세기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많았지만 아직도 많은 종류의 문양소재들이 단순화, 간략화되면서 사용되고 있었다.⁴³⁾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양들중에서 14세기 후반에 쇠퇴·소멸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문양을 대상으로 하여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쇠퇴·소멸하는 문양

고려말에 소멸해간 器形들이 있었던 것처럼 문양에서도 施文되는 예가 점차 줄어들면서 소멸하

42)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18, 小學觀, 1978, pp. 131~178.

43) 13세기 말엽에 이미 소멸해갔던 문양으로는 葡萄文, 竹文, 寶相華唐草文, 梅花文, 鸚鵡文, 瓦屋人物文, 童子文 등이 있으며 14세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문양의 종류로는 荔枝文, 鳳凰文, 菊花折枝文, 花卉文, 藥文, 雲鶴文, 雲點鶴文, 卍字文, 如意頭文, 蓮瓣文, 連珠文, 柳蘆水禽文, 柳文, 魚文, 牡丹唐草文 등이 있으며 종류를 알 수 없는 기하문이나 본래의 형태를 변형시킨 문양들도 있다.

는 문양이 있다. 14세기 후반까지 시문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결국 쇠퇴해갔던 중심문양으로는 荔枝文, 鳳凰文, 花卉鳥蟲文 등이 있다.

① 荔枝文

우선 荔枝文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고 있다. 荔枝란 아열대성기후에 속하는 중국의 동남부 등지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일찌기 新羅時代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 과일을 문양화한 여지문은 마치 다익은 石榴열매의 단면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12~13세기부터 청자상감대접의 중심문양으로 등장하는 소재의 하나였다.

13세기 초반의 여지문으로 연대가 확실한 예는 1202년에 돌아간 明宗의 智陵 출토 일괄품 중의 하나인 대접의 내면(圖版 25, 圖面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이 靑磁象嵌 荔枝文대접에서는 다섯개의 折枝 각각에 다섯개의 여지를 배치하였으며 열매, 잎사귀, 가지를 모두 조각도로 썬 후 백상감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의 정교함과 사실성은 14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둔화되어가고 여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의 14세기 후반 청자가마에서는 내면에 여지를 印花技法으로 나타내고 가지를 생략한 대접편들이 드물게 확인되고 있으며, 간혹 있다하더라도 다른 문양과 합쳐진 복합문의 일부로 남아 있어서 본래 여지문 단독의 중심문양은 찾아보기 어렵다(圖版 26, 圖面 22). 이 문양은 분청사기의 초기 단계에서조차 남아있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고려말 청자의 쇠퇴와 더불어 소멸해 간 문양으로 파악된다.

② 鳳凰文

상감청자의 문양 중에서 荔枝文과 같은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는 문양으로는 鳳凰文이 있다. 봉황문은 고려초부터 龍문양과 더불어 일반서민이 사용할 수 없었던 신분상징의 문양이었으며⁴⁵⁾ 상감청자가 생산되었던 기간 동안 항상 고급의 대접, 완, 합 등에 施文되고 있었다. 이 문양이 상감된 13세기의 예는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磁象嵌牡丹唐草鳳凰文대접(圖版 27, 圖面 23)의 내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봉황문은 벼슬이 달린 머리와 긴 목을 가졌으며 여러 갈래의 꼬리를 날리면서 양날개를 뒤로 젖힌 채 활짝펴고 牡丹唐草文사이를 飛上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눈과 부리, 목의 깃털과 길게 늘어진 꼬리의 사이에는 간혹 흑상감을 이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처럼 봉황문은 단독으로 시문되기 보다는 雲鳳이나 牡丹唐草鳳凰과 같이 다른 문양과의 조합을 이루는 복합문의 일부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던 것 같

44) 宋나라 蔡襄의 『荔枝譜』에는 宋代의 文人인 蘇軾의 文集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荔枝)水浮陸轉以入京師, 外至北戎, 西夏, 其東南舟行新羅, 日本, 流求, 大食之屬, 莫不愛好'(黃寬重, 『宋, 麗貿易與文物交流』, 『震檀學報』 71·72集, 震檀學會, 1991, pp. 336~347 참조)

45) 『高麗史節要』, 卷第1, 顯宗1元文大王, 乙丑(1025)年 9月, '禁中外民庶, 衣服器物, 龍鳳文樣'

다.

14세기에 이르면 다른 문양과 마찬가지로 봉황문 역시 簡化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봉황은 비늘이 사라지고 둥근 머리만 남게 되며 꼬리 깃털이 생략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만 원래의 문양이 복잡한 탓인지 印花로 시문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변화된 봉황의 모습은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磁象嵌蓮唐草鳳凰文대접(圖版 28, 圖面 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접에서는 봉황이 간략화된 정도가 심하여 같은 시기에 시문되고 있었던 鶴문양과의 구별이 애매하리만큼 변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황문은 상감청자의 문양소재 중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청사기에서는 수용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14세기말에 소멸한 문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花卉鳥蟲文

소멸하는 문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로 花卉鳥蟲文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花卉란 干支銘象嵌靑磁가 제작되던 시기에 빈번하게 시문되었던 無名의 折枝花를 가리킨다. 이 문양의 祖型은 13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靑磁象嵌花卉鳥蟲文대접(圖版 29, 圖面 25)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접의 내면에는 두 종류의 折枝花와 나무에 앉아있는 새, 꽃사이를 날고 있는 나비를 등장시켜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마치 繪畫에서의 정교한 花鳥圖를 연상케 하는 사실적인 기법으로 상감을 하여 중심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이 문양은 13세기 후반이 되면 여러 부분에서 圖式化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靑磁象嵌花卉鳥蟲文「巳巳」銘대접(圖版 30, 圖面 26)에서는 각각의 소재들이 사실적인 표현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문양을 상감하는 방식도 조각칼이 아닌 도장과 같은 施文道具를 이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화훼조충문은 14세기 후반이 되면 다른 문양에 비해 생략과 단순화가 더욱 심해지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靑磁象嵌花卉折枝文대접(圖版 31, 圖面 27)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와 나비의 소재가 탈락하고 花卉折枝만이 겨우 형태만 알아 볼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훼조충문의 소재는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략과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분청사기에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고려말에 소멸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새로운 문양

14세기 후반에는 그릇의 내외면에 새롭게 출현하는 문양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같은 시기에 새롭게 출현하는 器形들이 中國 元代 磁器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여 이들 새로운 문양계통은 다른 도자문화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自生的인 성격이 강하다. 이 시기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중심문양으로는 放射線波狀文과 線文이 있으며 보조문양으로는 형태를 규정하기 어려운 幾何文을 들 수가 있다.

① 放射線波狀文

방사선과상문은 대개 구연이 약간 오므라든 작은 접시류의 편평한 바닥면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

다. 꼬불꼬불한 모양의 파상문은 13세기경의 흠이나 작은 접시류에서 볼 수 있는 雲点鶴文에서의 구름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배치에 있어서 14세기 후반에 새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양의 始原的인 모습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호요지 수습품 중에 하나인 靑磁象嵌突起文 접시(圖版 32, 圖版 17의 내면임, 圖面 28)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접시의 내면바닥 중앙에는 菊花文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을 이중의 圓圈으로 둘러싼 후 波狀文을 부채살이 퍼진 것처럼 시문하여 놓았다. 각각 일정한 크기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가지의 施文具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마치 石佛像이나 佛畫에서 볼 수 있는 光背의 형상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문양은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14세기 후반 요지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재는 아니다. 다만 이보다 더 퇴화되고 작아진 형태의 문양형식(圖版 33)이 15세기 초반의 분청사기 요지에서 다량으로 수습되고 있어서⁴⁶⁾ 이 문양은 고려 말기에 발생하여 조선초기의 분청사기에서 유행했던 소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線文

새롭게 출현했던 문양의 또 다른 예로는 몇 줄의 백상감선만으로 문양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고 있는 線文을 들 수 있다. 線文을 문양의 범주에 넣기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으나 상감문양이 전혀 없는 素文과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양의 하나로서 취급하고자 한다.

이 문양은 고려말기에 상감청자가 대량생산되고 쇠퇴하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상감청자에 있어서의 線文은 상감발생 초기부터 보조문양帶를 구성하기 위한 구획선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14세기 전반까지의 線文은 문양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의미의 線에 가깝다.

그러나 상감문양이 간략화되는 14세기 후반에는 器面에 문양을 넣지 않고 몇 줄의 상감선만으로 문양처리를 한 대접이나 접시류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강원도 원성군 令傳寺址 三層石塔을 옮길 때 「洪武 21年 戊辰(1388) 四月」銘塔誌와 함께 발견된 靑磁象嵌線文대접(圖版 5)⁴⁷⁾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의 14세기 후반 요지들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 같은 가마에서 제작된 磁器들 중에서도 良質보다는 粗質청자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양은 당시의 고급 수요층을 대상으로 했던 청자의 문양소재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象嵌線만으로 문양을 구성했던 예는 조선초기의 분청사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수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등지에서는 線文의

46)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본문내용, p. 372 및 圖版 pp. 113~114.

47) 본문 앞의 내용〈Ⅲ. 編年資料의 檢討〉중 (5)項 참조.

상감계분청사기편들이 수습되고 있어서 적어도 조선초까지는 상당히 유행을 했던 문양계통으로 볼 수 있다(圖版 34).

③ 幾何文

한편 14세기 후반에 발생한 문양 가운데에는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幾何文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어떠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보다는 몇 개의 단순한 작은 문양들을 반복적으로 모아서 集團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 문양들이다. 이러한 계통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목을 끄는 예는 고려말기의 상감청자가마인 사당리 10호요지 수습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개구리알같은 작은 원을 몇개씩 모아서 규칙적으로 배열하거나, 또는 十字분할한 작은 동심원으로 器面을 짝 매움으로써 간단한 施文器具를 이용하여 손쉽게 印花象嵌하려 한 제작의도를 엿볼 수 있다(圖版 35).

이러한 문양들은 약간 변형되기는 했지만 이후 조선초기의 분청사기 가마인 정남 山淸郡 新等面 長川里의 수습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圖版 36). 사당리와 장천리 수습품 모두, 동반 수습된 다른 磁片에 비하여 비교적 釉色이 정갈하고 문양도 정제된 채로 시문되어 있어서 이 문양이 비록 단순하지만 비교적 上品에 시문되었던 문양임을 추정할 수 있다. 문양이 器面을 짝 매우고 있는 조선초 印花文系 粉靑沙器의 출발이 바로 이러한 시문방법에서 출발하였으리란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14세기 후반 상감청자의 飲食器皿에서 볼 수 있는 문양들의 변화와 영향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 시기의 문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향과 특징에 대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세기 후반에 와서 소멸하고 있는 문양들은 대체로 복합문으로 구성되거나 시문공정이 복잡하여 上品磁器에 활용되었던 소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소멸하는 요소들은 대량생산과 간편화라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새롭게 출현한 문양의 경우는 전통적인 문양요소를 변화시키거나 간략화시켜 소멸해 간 문양에 대한 대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조각에 의한 상감보다는 간단한 도장같은 施文道具를 이용한 상감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실용성과 생산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조선초 인화문계 분청사기의 중심을 이루는 모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製作技法

앞에서 器形과 文樣을 통해 살펴본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는 飲食器皿 중심의 제작패턴과 대량생산의 추구에 의한 질적 하락이라는 현상으로 규정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動因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製作環境에서 惹起되

는 여러가지 기술여건의 변화는 상감청자의 造形에 보다 직접적이고 可視的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節에서는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약 40餘 基에 해당하는 14세기 후반 청자요지수습품을 방증자료로 하여 기술적 요소인 굽의 형태와 굽받침법, 燒造法과 가마도구(窯道具), 釉胎色과 施釉상태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굽이란 그릇의 하중을 받는 부분으로 그 형태는 그릇의 종류나 무게, 크기와 관련이 있다. 대체로 12세기의 음식용 그릇의 경우에는 작고 단면이 扁축한 역삼각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청자의 제작기술이 세련된 단계였기 때문에 器壁이 얇고 무게가 적게 나가 굽이 작더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부터 그릇이 두터워지고 하중이 많이 나가면서 당연히 굽역시 두툼한 'U'字形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4세기 후반에 더욱 심해져 굽의 接地面이 넓어지고 'ㄷ'字를 모로 세운 듯한 형식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제작 측면에서의 변화는 굽을 받치는 방법에서도 볼 수 있다. 14세기 초반까지도 볼 수 있었던 굽은 硃石이나 모래를 깔아 굽는 방법은 이후 점차 사라지고 14세기 중반을 이후로 점차 점토를 받치거나 굽은 모래를 깔아 燒造하는 방법으로 대체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磁器를 받쳐 굽는 방법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은 가마 안에 磁器를 재입하였던 燒造방법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초부터 고급청자의 제작에는 匣鉢⁴⁸⁾을 이용한 匣燻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13세기까지의 靑磁窯址에서는 匣鉢片이나 硃石을 끼워 청자를 받쳤던 받침(硃石支釘足座)이 발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4세기 후반의 청자요지에서는 匣鉢片이나 硃石받침용 足座 대신에 점토가 붙어있는 청자편(圖版 37)과 장고형도지미(長數形陶枕: 圖版 38)만이 발견되고 있어서 匣燻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초부터 粗質청자생산에서 볼 수 있는 도자기를 켜켜로 쌓아굽는 방식, 즉 常燻⁴⁹⁾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급도자기의 경우는 쌓아굽지를 얇고 가마바닥에 한개씩만 놓고 굽는 例燻⁵⁰⁾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磁象嵌牡丹唐草文「正陵」銘대접(圖版 4)의 경우는 14세기 후반의 고급청자를 대표하는 예이지만 내면 바닥에 재티로 보이는 불순물이 많이 있어 匣鉢을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었던 상감청자는 그 釉色에 있어서 대체로 暗褐色, 暗綠色, 黃色 등 약간의 酸化끼를 머금은 黃色調를 띠고 있다. 그리고 상감청자의 표면은 얇게 施釉된 유약으로 인하여 氣泡가 줄어들었고 미세한 균열이 器面 전체를 덮고 있다. 施釉에 있어서는 기면 전체에 유약

48) 『承政院日記』卷 262, 肅宗 3年 11月 21日條.

『日省錄』504, 544冊, 正祖條.

49) 『光海君日記』卷 102, 『日省錄』542冊.

50) 『日省錄』343冊, 475冊 正祖條.

『書啓輯錄』9卷, 「摘奸史官具得魯書啓」.

을 씌우지만 굽의 처리는 接地面이나 굽의 안바닥을 대충 긁어내는 경우가 많으며 上品이나 下品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고려말에 이르면 종래의 磁器의 제작방법에서 볼 수 있었던 陶范(틀 : 圖版 39)에 의한 器形의 成形이나 文樣의 제작이 점차 줄어들고 대신 물레를 이용한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陶范이란 정교한 器形이나 문양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간단한 제작품종이 형성되었던 고려말에는 도범의 이용이 저조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감문양이 陶范에 의해 양각문양으로 바뀌면서 쉽게 제작하려 한 시도도 엿보이고 있어서(圖版 40) 틀에 의한 기법이 퇴조하는 가운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응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말의 청자제작이 정교함보다는 量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이 대충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서 당연히 불량율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량은 특히 굽바닥을 얇게 깎지 않고 두껍게 남겨 놓음으로 해서 건조시에 바닥이 터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成形 후 약간 건조된 다음 굽바닥을 굽칼로 꼭꼭다져주는 방법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말에 해당하는 康津의 청자요지에서는 이렇게 굽다짐을 한 흔적(圖版 41)들이 발견되고 있어 조선초 분청사기의 굽바닥에서 볼 수 있는 다짐흔적의 출발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어가지만 상대적인 현상으로 質이 점차로 하락해간다는 전제하에서 高麗象嵌靑磁의 器形, 文樣, 製作技法에 대한 조형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 시기에 소멸해갔던 요소들과 새로 발생한 요소들을 고찰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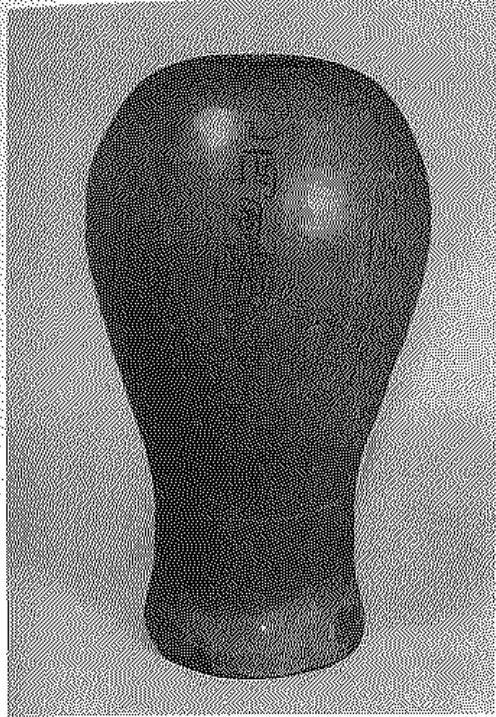
첫째, 14세기 후반에 와서 쇠퇴·소멸하는 飲食器皿의 예로는 구연이 斜線式으로 벌어진 접시, 팔각접시, 口緣이 안으로 오므라든 花形접시 등의 종류와 荔枝文, 鳳凰文, 花卉鳥蟲文 같은 문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작기법에 있어서는 匣鉢을 이용한 燻造방법과 硃石을 받쳐굽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陶范을 이용한 방법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14세기 후반에 와서 사라지고 있는 요소들은 실용성과 경계성이 요구되는 대량생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세기 후반의 새로운 조형요소로서 口緣이 외반된 대접, 突起文 접시, 새로운 형태의 전접시, 잔과 같은 器形들과 더불어 방사선파상문, 線文, 기하문과 같은 새로운 문양이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작기법에서는 층층이 쌓아서 燻造하는 常燻과 태토를 받쳐굽는 방법 등이 사용되면서 같은 시기에 소멸해 간 요소들을 대체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발생한 새로운 요소들은 조선초기 분청사기의 조형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이 象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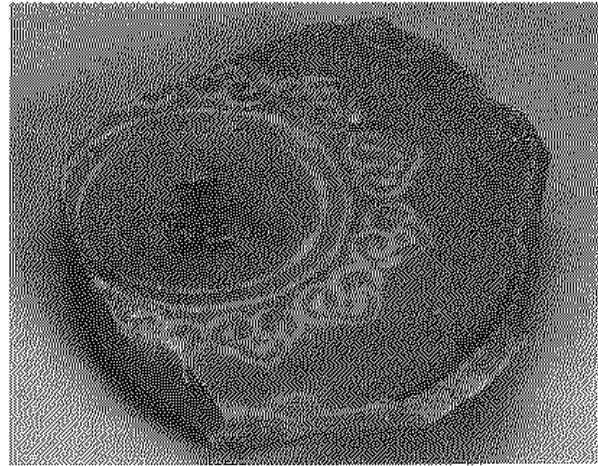
印花계열의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거의 대부분 수용되면서 지속적, 또는 부분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간편화와 경제성이 요구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들은 당시에 性理學을 바탕으로 한 新興士大夫들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思考와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양상을 쇠퇴일변도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또 하나의 발전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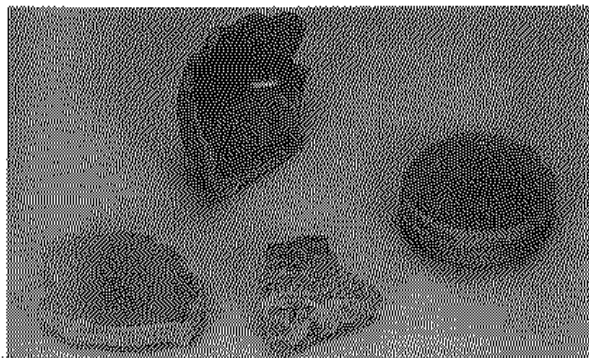
본 글은 그동안 쇠퇴기로 알려진 14세기 상감청자의 여러가지 조형요소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발표의 준비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고려말기 상감청자와 조선시대의 상감분청, 인화분청과의 구체적인 비교분석, 조선초 상감백자와의 관계, 그리고 조선청자와의 관계 등은 곧 기회가 있는대로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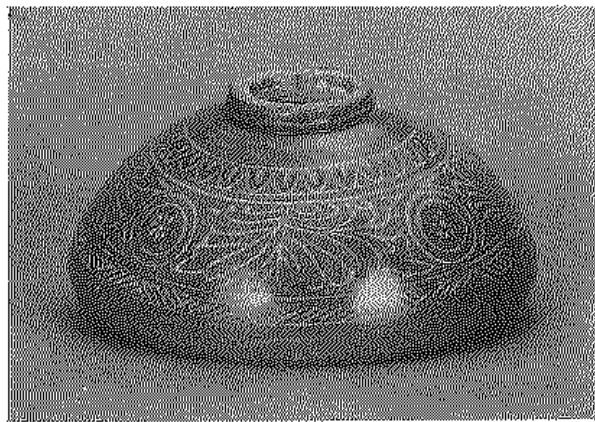
圖版 1. 青磁象嵌柳文「乙酉司醞署」銘梅瓶，
高麗，1345年，高 30.1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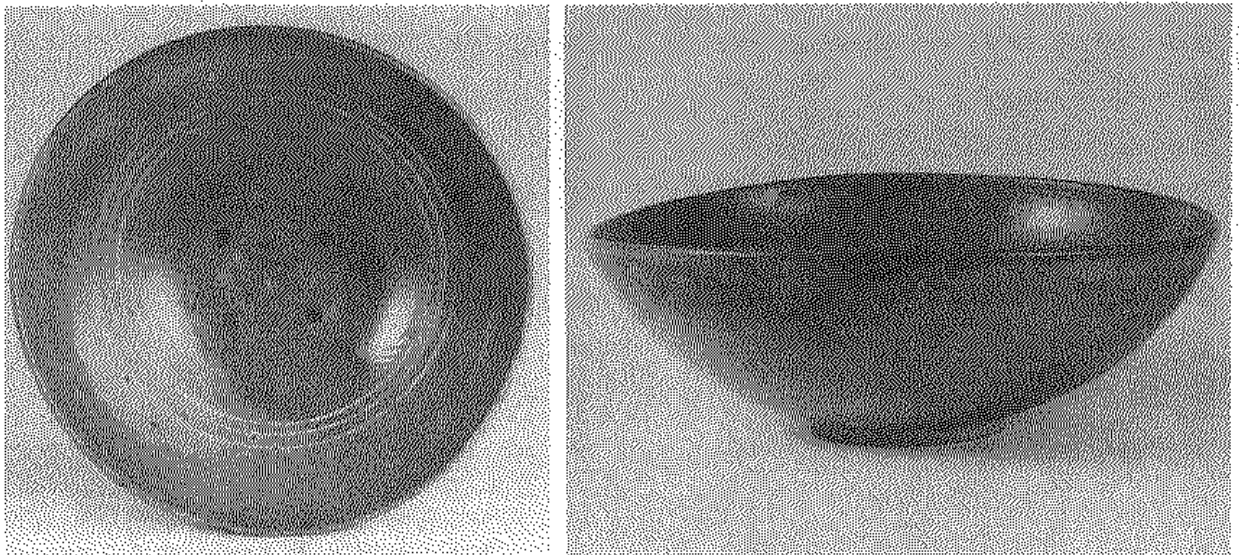
圖版 2. 青磁象嵌如意頭文「至正」銘접시편，高麗，
1341~1367年，長 8.2cm，底徑 6.8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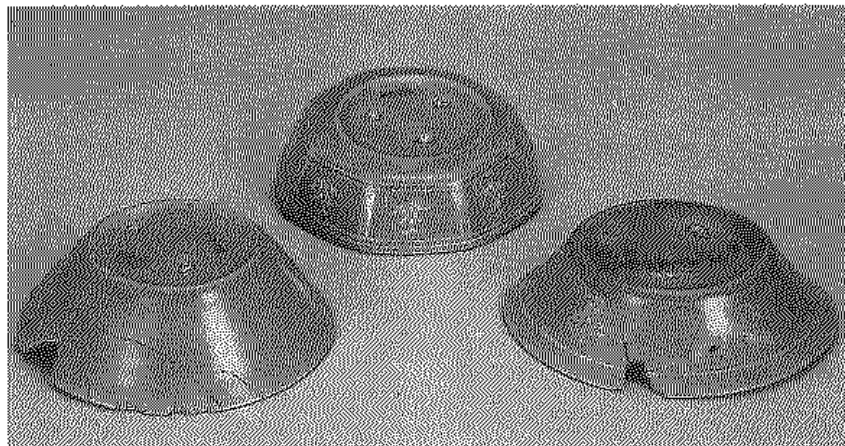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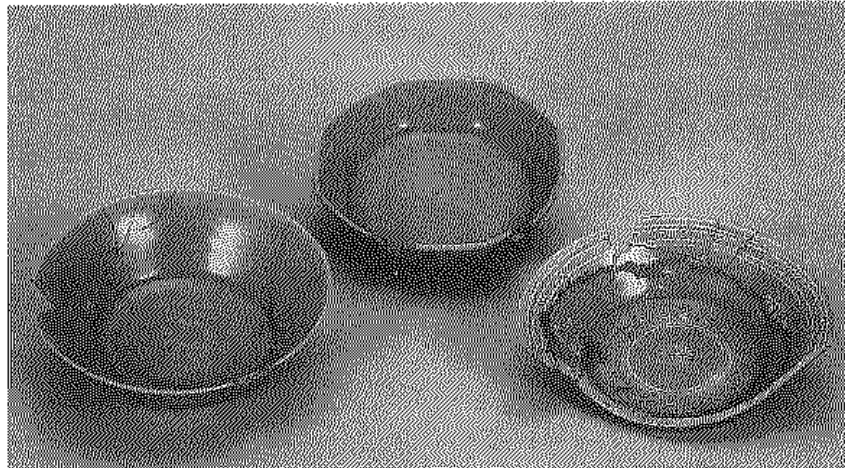
圖版 3. ①, ②, ③, ④. 青磁象嵌「丁亥」銘접시·
대접편，高麗，1347年，長 5.2cm，
底徑 5.6cm，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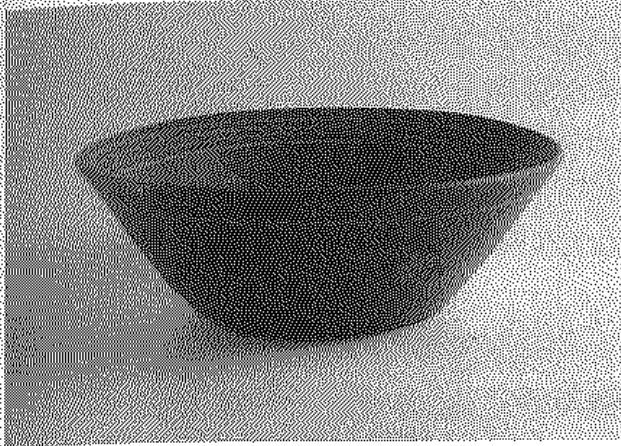
圖版 4. 青磁象嵌牡丹唐草文「正陵」銘대접，
1365~1374年，高 8.4cm，口徑 19.5cm，
底徑 6.1cm，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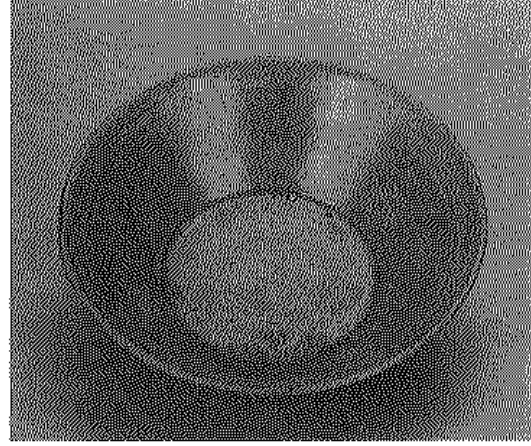
圖版 5. 青磁象嵌線文대접, 高麗, 1388年, 令傳寺址 출토, 高 19.6cm, 底徑 6cm, 國立中央博物館



圖版 6. ①, ②, ③. ① 青磁陽刻菊花文접시, ② 青磁陽刻·象嵌牡丹文八角접시, ③ 青磁象嵌菊花文접시, 高麗, 1202年, 高 3.8cm, 明宗智陵 출토, 國立中央博物館



圖版 7.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접시, 高麗, 1269(1329)年, 高 4.6cm, 口徑 13.6cm, 底徑 7cm, 海剛陶磁美術館



圖版 8. 青磁象嵌菊花文「壬午」銘접시, 高麗, 1282(1342)年, 高 3.6cm, 口徑 14cm, 底徑 6.1cm, 高麗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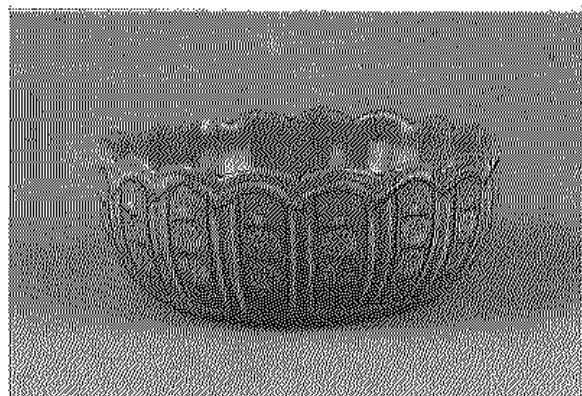
圖版 9. 青磁象嵌菊花文접시,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高 3.9cm, 口徑 13.3cm, 底徑 5.2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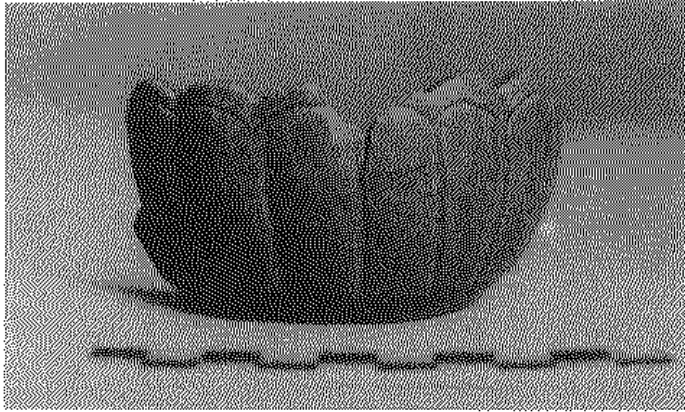
圖版 10. 青磁象嵌菊花文「丁亥」銘八角접시, 高麗, 1347年, 高 5.7cm, 口徑 12.8cm, 底徑 6.6cm, 高麗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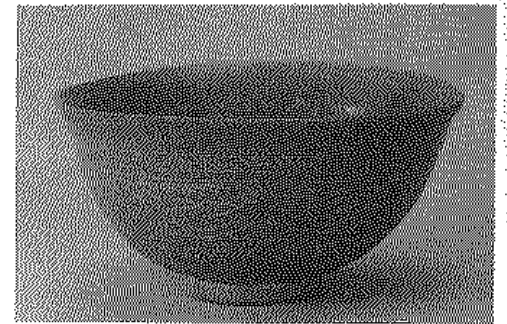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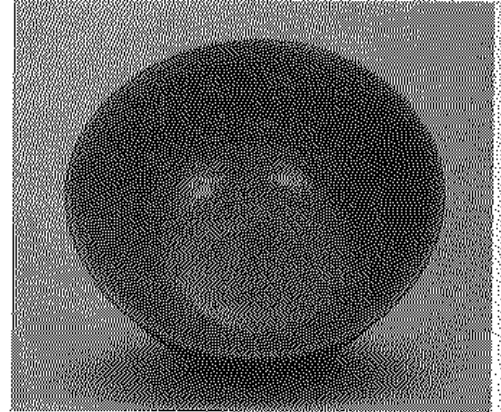
圖版 11. 青磁象嵌雲文八角접시,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高 5cm, 口徑 11.5cm, 底徑 6.4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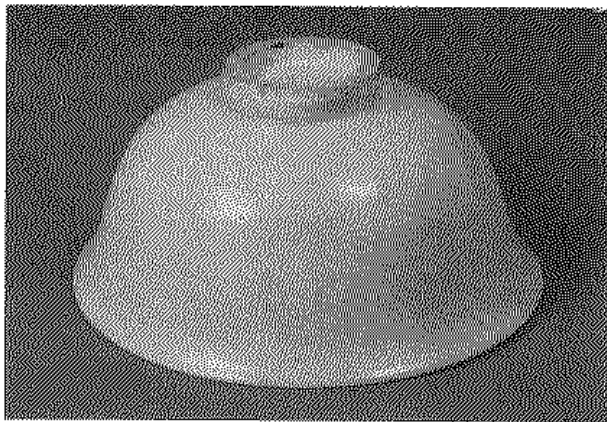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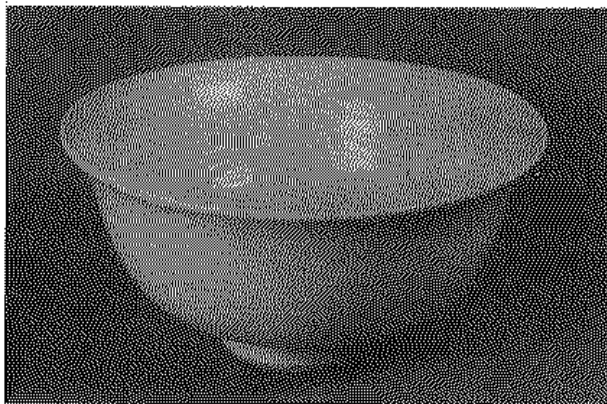
圖版 12. 青磁象嵌菊花文花形접시, 高麗, 13세기, 高 3.3cm, 口徑 8.7cm, 底徑 6.1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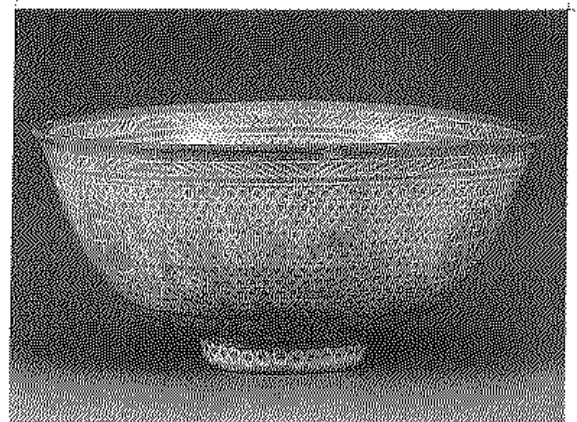
圖版 13. 青磁象嵌「丁亥」銘花形盃耳, 高麗, 1347年,
全南 雲住寺址 倉丘, 全南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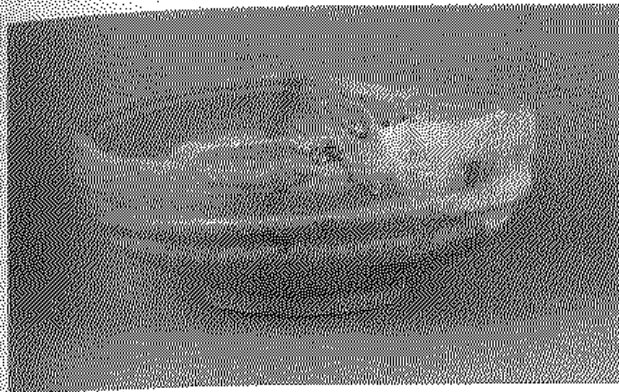
圖版 14. 青磁象嵌雲鶴文「宴禮色」銘대접,
高麗, 14세기. 高 9.4cm, 口徑 18.4cm,
底徑 6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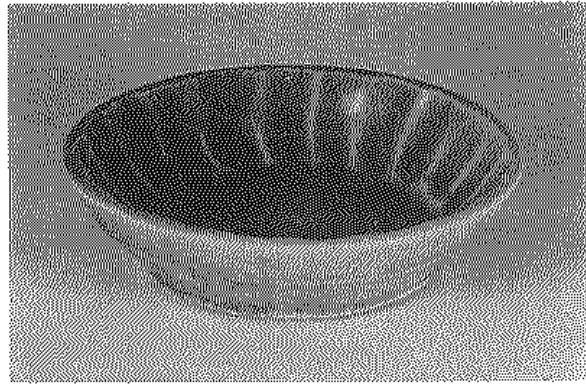
圖版 15. 白磁印花唐草文대접, 元, 14세기, 景德鎮窯,
高 9.6cm, 口徑 19.8cm, 底徑 6.2cm,
東京國立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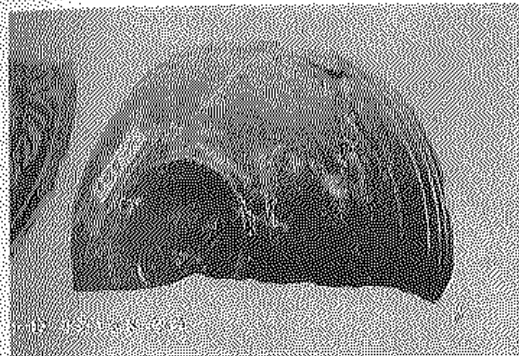
圖版 16. 粉青沙器印花文「長興庫」銘대접, 朝鮮,
15세기, 高 8.9cm, 口徑 18cm, 底徑 5.7cm,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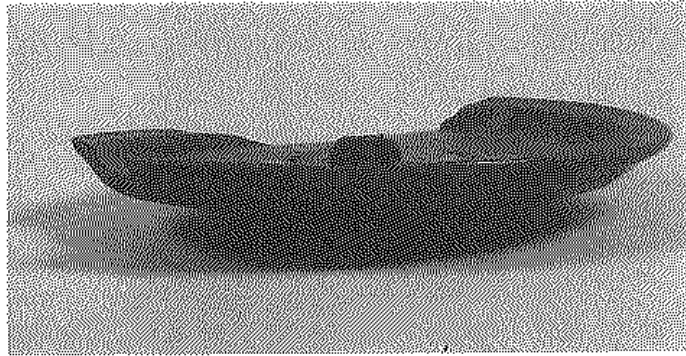
圖版 17. 青磁象嵌突起文접시,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高 5cm, 口徑 10.8cm, 底徑 5.1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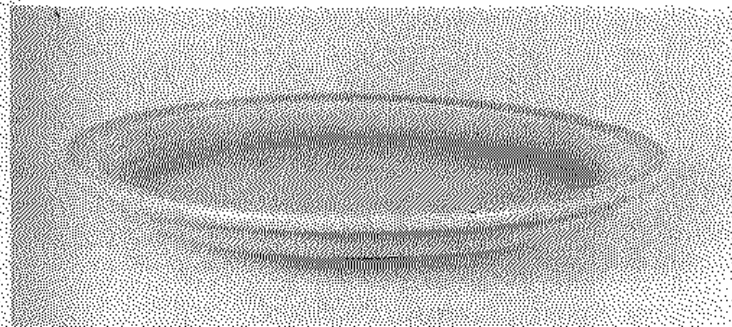
圖版 18. 青磁접시, 元, 14세기 전반, 龍泉窯, 新安 출토, 高 3.5cm, 口徑 12.4cm, 底徑 8.3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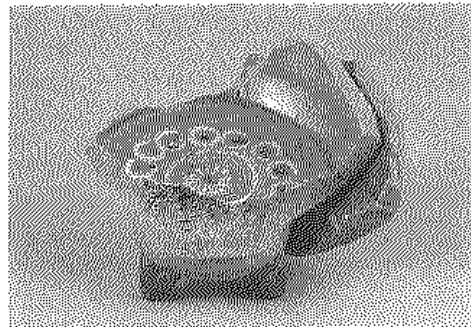
圖版 19. 粉青沙器象嵌草文「金」銘접시, 朝鮮, 15세기 초반, 公州郡 中興里, 姜敬淑, 『粉青沙器研究』, p.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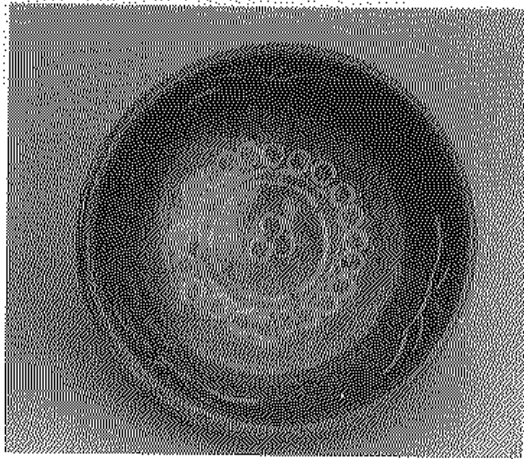
圖版 20. 青磁象嵌菊花文전접시,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高 3.8cm, 口徑 14cm, 底徑 5.2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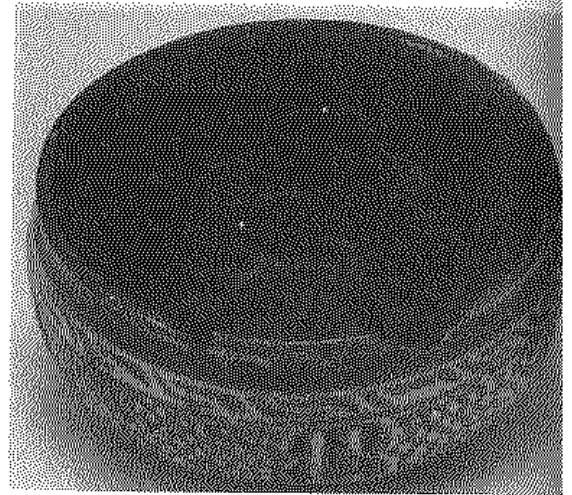
圖版 21. 青磁전접시, 元, 14세기 전반, 龍泉窯, 高 2.7cm, 口徑 16.7cm, 底徑 4.8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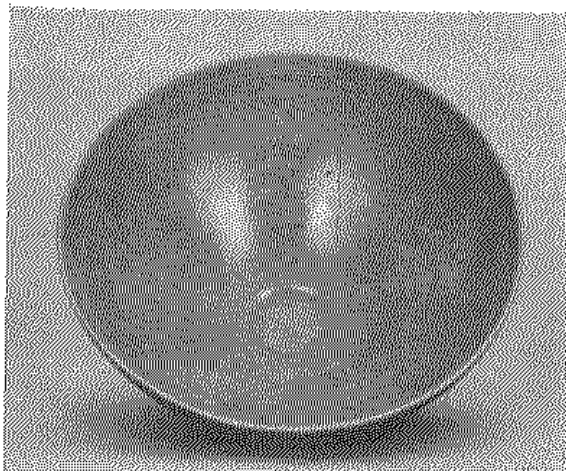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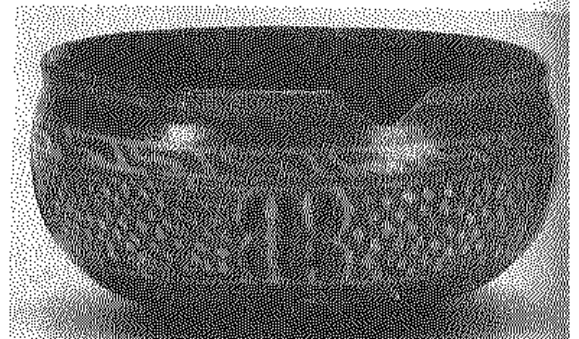
圖版 22. 青磁象嵌蓋片,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底徑 4.3cm, 海剛陶磁美術館



圖版 23. 青磁象嵌菊花文盞, 14세기말~15세기초,
高 4.8cm, 口徑 8.4cm, 底徑 4.3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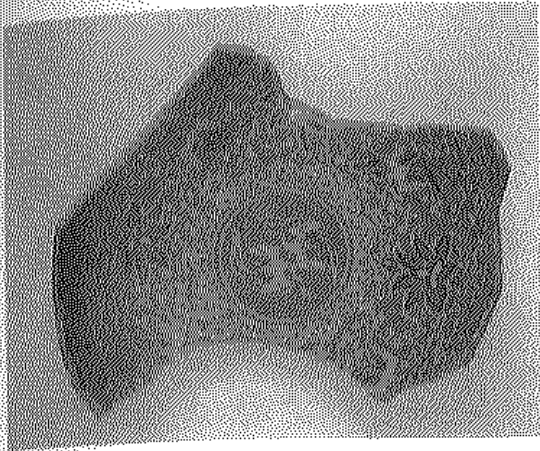
圖版 24. 粉青沙器象嵌波濤文盞, 朝鮮, 1404年,
崔雲海墓 瘞豆, 高 3.4cm, 口徑 6.5cm,
底徑 3.3cm, 國立中央博物館



圖版 25. 青磁象嵌荔枝文대접, 高麗, 1202年,
明宗 智陵 瘞豆, 高 8.6cm,
口徑 20.2cm, 底徑 5.8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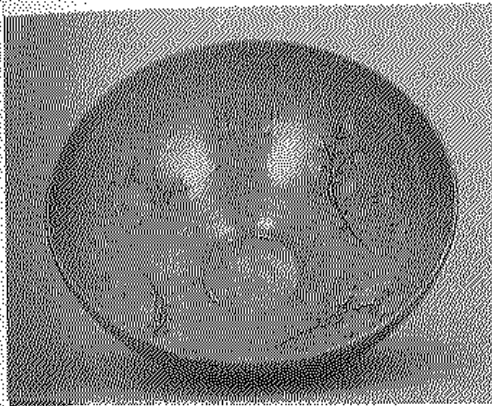
圖版 26. 青磁象嵌荔枝文대접,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 瘞址, 底徑 5.4cm,
海剛陶磁美術館



圖版 27. 青磁象嵌牡丹唐草鳳凰文대접, 高麗, 13세기, 底徑 6.8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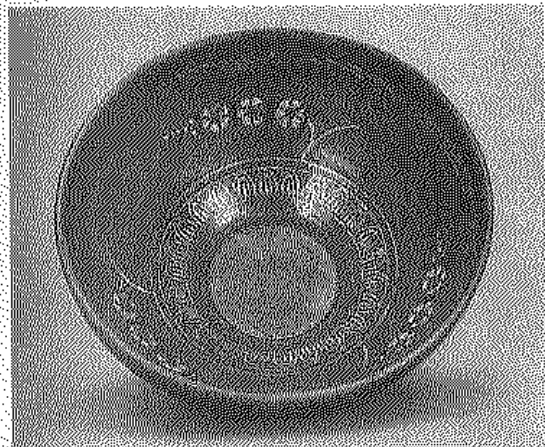
圖版 28. 青磁象嵌蓮唐草鳳凰文대접, 高麗, 14세기, 高 5.8cm, 口徑 19.8cm, 底徑 6.5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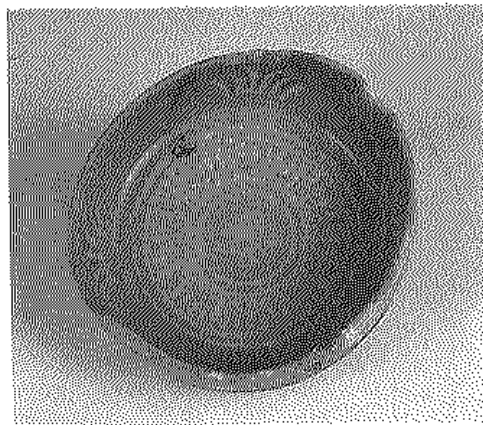
圖版 29. 青磁象嵌花卉鳥蟲文대접, 高麗, 13세기, 高 9cm, 口徑 20.6cm, 底徑 6.8cm,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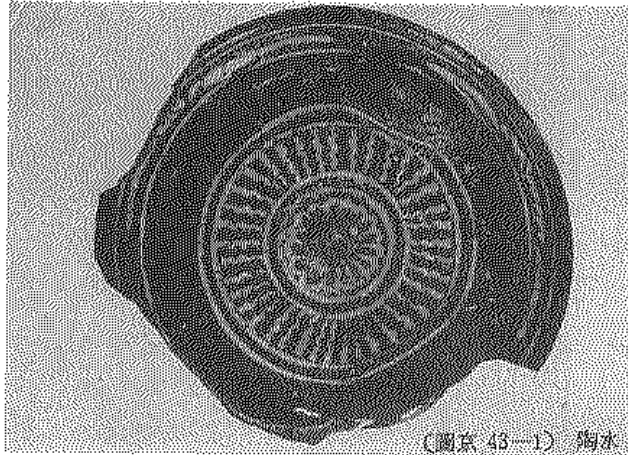
圖版 30. 青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대접, 高麗, 1269(1329)年, 高 7.6cm, 口徑 18.7cm, 底徑 6.7cm, 海剛陶磁美術館



圖版 31. 青磁象嵌花卉折枝文대접, 高麗, 14세기 후반, 高 9.1cm, 口徑 19cm, 底徑 6.4cm, 國立中央博物館



圖版 32. 青磁象嵌突起文접시(도판 17의 내면),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高 5cm, 口徑 10.8cm, 底徑 5.1cm,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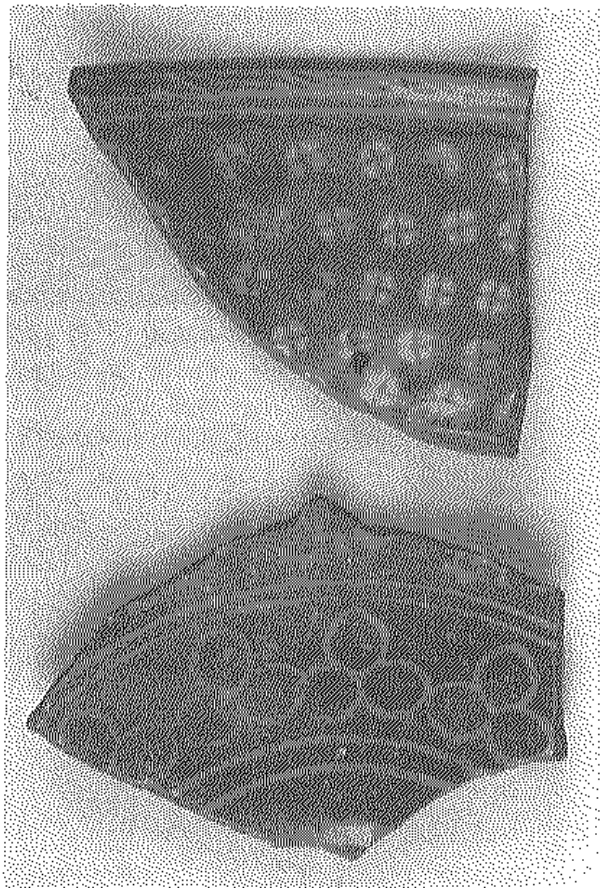
(圖京 43-1) 陶水

圖版 33. 粉靑沙器象嵌放射線波狀文접시, 14세기말 ~ 15세기초, 廣州郡 陶水里,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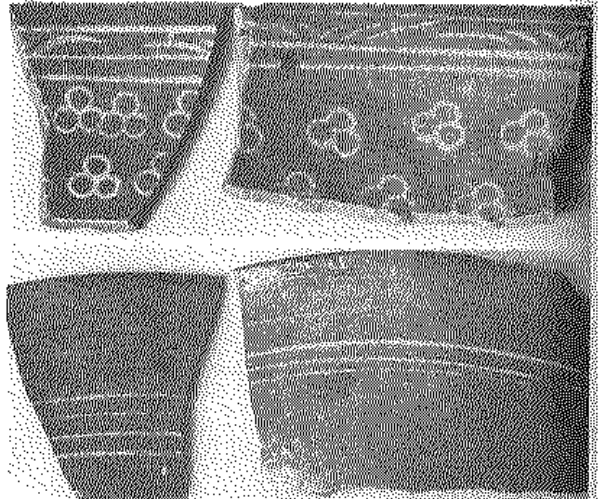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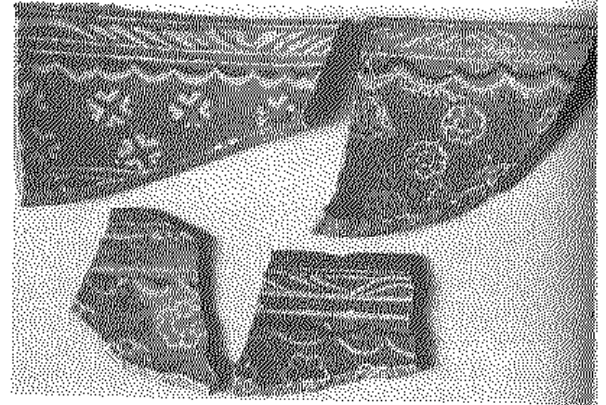


(圖京 44-1) 陶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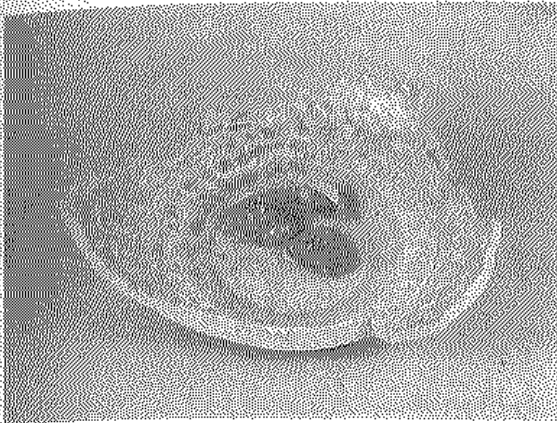
圖版 34. 粉靑沙器象嵌線文대접, 14세기말 ~ 15세기초, 廣州郡 陶水里,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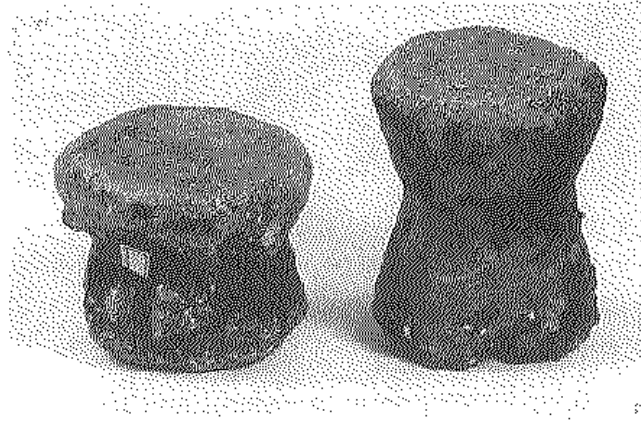
圖版 35. 靑磁象嵌대접片,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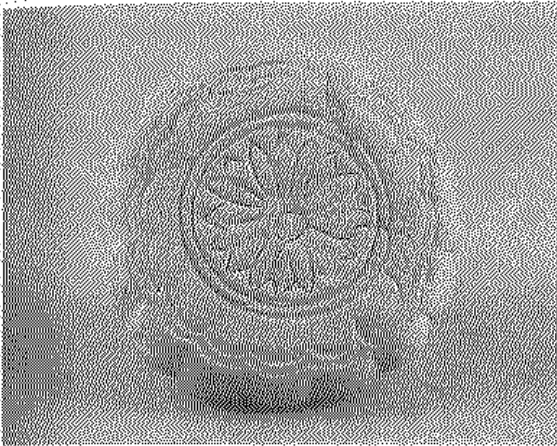
圖版 36. 粉靑沙器象嵌대접片, 14세기말 ~ 15세기초, 山淸郡 長川里,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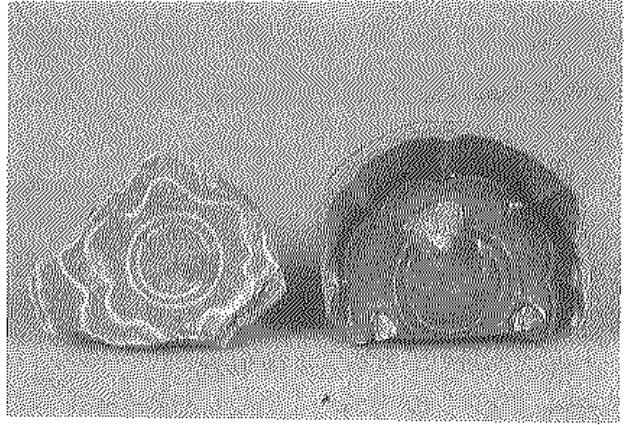
圖版 37. 象嵌靑磁대접 내면의 점토빛음발침,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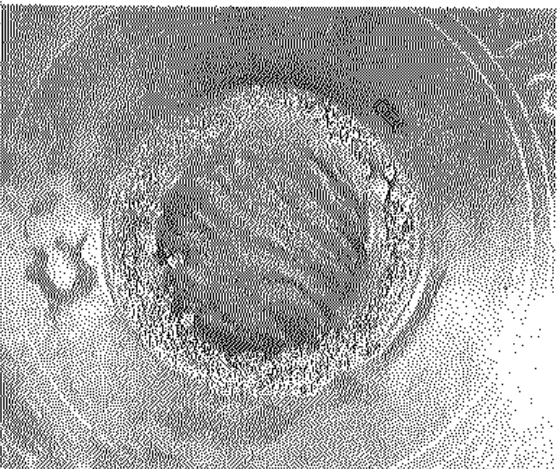
圖版 38. 장고형도지미(長鼓形陶枕),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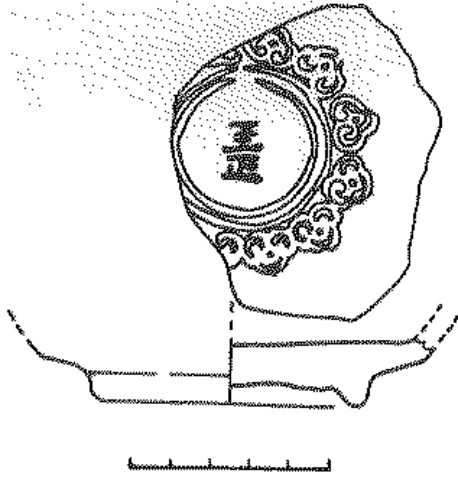
圖版 39. 陶范(틀),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1號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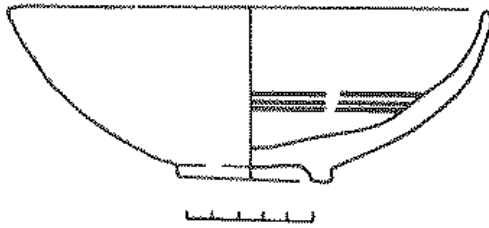
圖版 40. 象嵌施文片和 陶范에 의한 陽刻文樣,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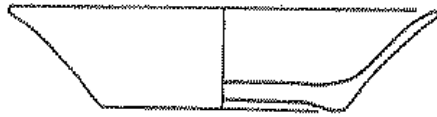
圖版 41. 굽다집흔적, 高麗, 14세기 후반, 沙堂里 10號窯址, 海剛陶磁美術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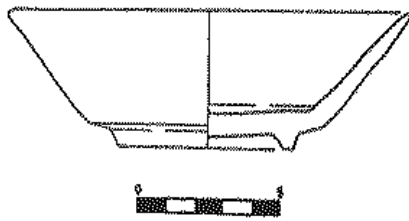
圖面 1(圖版 2). 青磁象嵌如意頭文「至正」
銘접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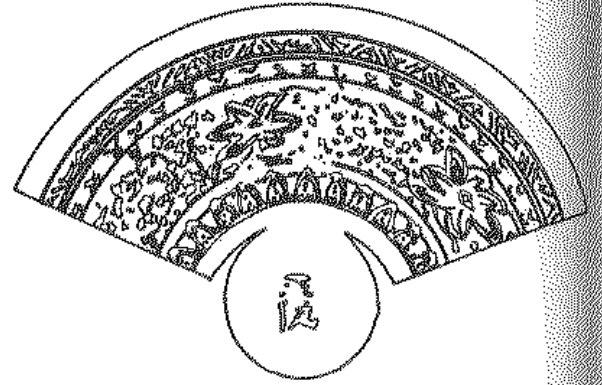
圖面 3(圖版 5). 青磁象嵌線文대접
(令傳寺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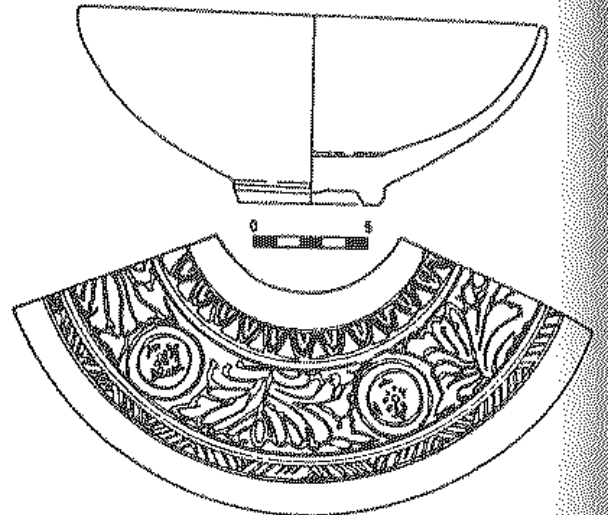
圖面 4(圖版 6의 ③). 青磁象嵌菊花文접시
(明宗智陵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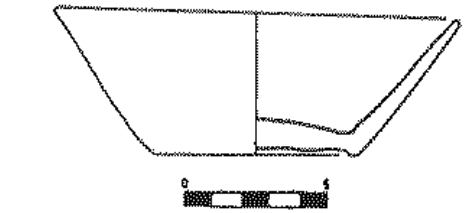
圖面 6(圖版 8). 青磁象嵌菊花文
「壬午」銘접시



圖面 2(圖版 4). 青磁象嵌牡丹唐草文「正陵」銘대접



圖面 5(圖版 7). 青磁象嵌菊花文「己巳」銘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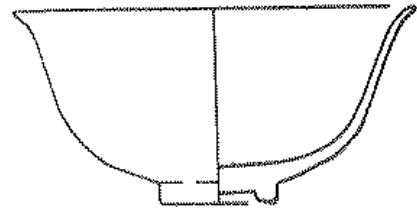
圖面 7(圖版 9). 青磁象嵌菊花文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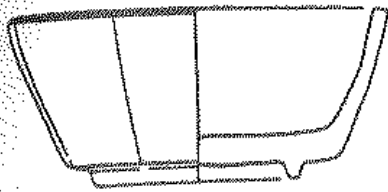
圖面 8(圖版 6의 ②). 靑磁陽刻
象嵌牡丹文八角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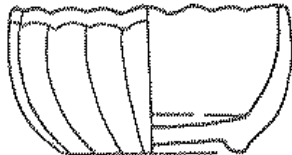
圖面 11(圖版 12). 靑磁
象嵌菊花文花形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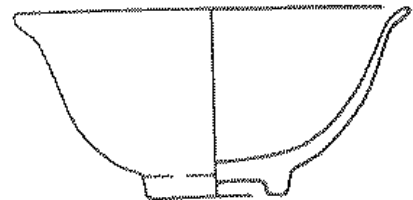
圖面 13(圖版 14). 靑磁象嵌雲鶴文
「宴禮色」銘대접(추정)



圖面 9(圖版 10). 靑磁象嵌菊花文
「丁亥」銘八角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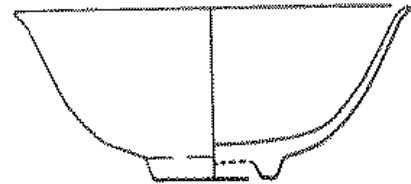
圖面 12(圖版 13). 靑磁象
嵌「丁亥」銘花形
접시



圖面 14(圖版 15). 白磁印花唐草文
대접(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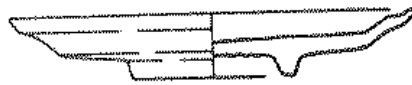
圖面 10(圖版 11). 靑磁象嵌雲文
八角접시



圖面 15(圖版 16). 粉靑沙器印花文
「長興庫」銘대접(추정)



圖面 16(圖版 17). 靑磁象嵌突
起文접시



圖面 18(圖版 20). 靑磁象嵌菊花
文전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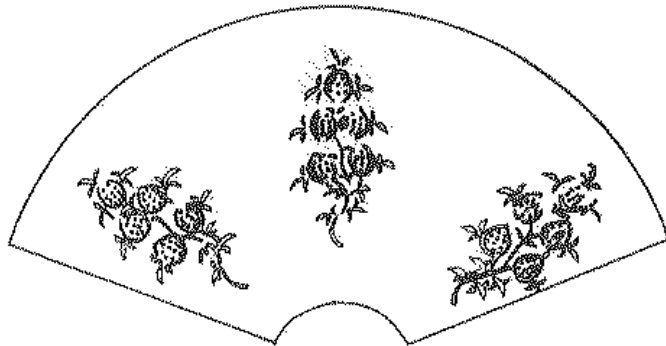
圖面 19(圖版 22). 靑磁象嵌
蓋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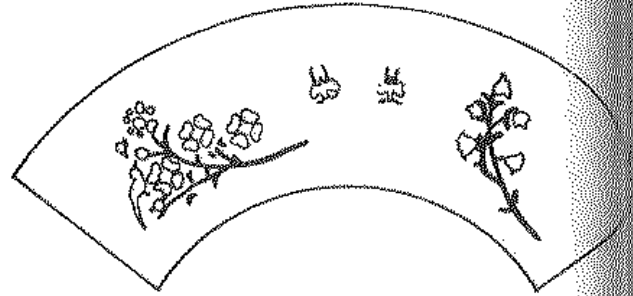
圖面 17(圖版 19). 粉靑沙器象
嵌草文「金」銘접시(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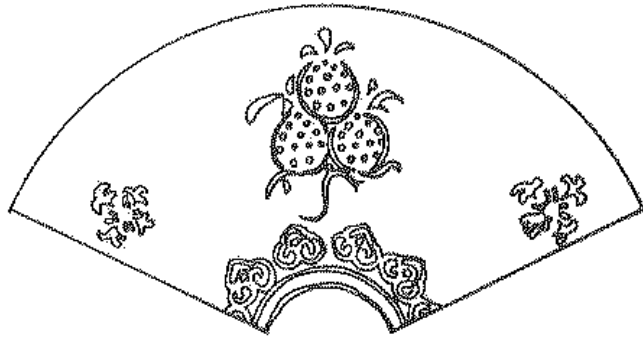
圖面 20(圖版 23). 靑磁象嵌
菊花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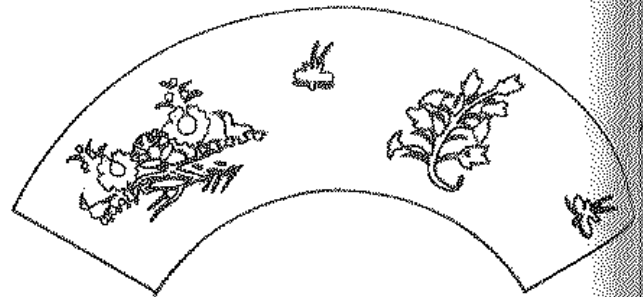
圖面 21(圖版 25). 靑磁象嵌荔枝文대접의 내면문양
(明宗智陵 출토)



圖面 25(圖版 29). 靑磁象嵌花卉鳥蟲文대접의 내면문양



圖面 22(圖版 26). 靑磁象嵌荔枝文대접의 내면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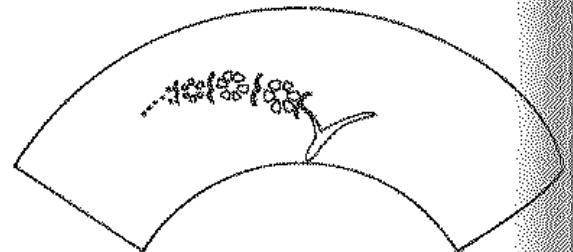
圖面 26(圖版 30). 靑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대접의 내면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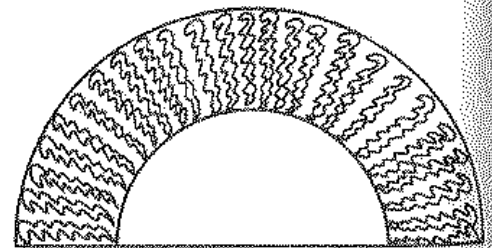
圖面 23(圖版 27).
靑磁象嵌
丹唐草鳳凰
文대접의
내면문양



圖面 24(圖版 28). 靑磁象嵌蓮
唐草鳳凰文대접의
내면문양



圖面 27(圖版 31). 靑磁象嵌花卉折枝文대접의
내면문양



圖面 28(圖版 32, 圖版 17의 내면). 靑磁
象嵌突起文접시의 내면문양